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타이완, 격변의 세월

(我們臺灣這些年)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科

金은나래

2011年 8月



타이완 , 격면의 세월

金은나래

11011

# 타이완, 격변의 세월

我們臺灣這些年-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金 은 나 래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8月

金은나래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1年 8月

## 목 차

◎ 역자 서문 .....	1
◎ 1977年 .....	2
유엔 축출, 혼란에 쌓인 타이완 .....	2
◎ 1978年 .....	5
장격국(蔣經國)의 연임과 “십대 건설” .....	5
◎ 1979年 .....	8
우리 가족 .....	8
타이완 정부, 미국과의 “단교” .....	9
◎ 1980年 .....	11
80년대의 타이완 방송 .....	11
미려도(美麗島) 사건 .....	12
천수이벤(陳水扁)의 일생을 바꾼 “미려도 재판” .....	14
◎ 1981年 .....	17
유치원 시절, 어린 시절의 “신해혁명 기념일” .....	17
타이완 민주주의 싹 .....	19
천원칭(陳文成) 사건 .....	21
◎ 1982年 .....	23
<초류향>(楚留香)의 대유행 .....	23
김용(金庸) 소설의 금지 .....	25
타이완 족군(族群)과 “외성인(外省人)” .....	27
리스커(李師科) 사건 .....	31
◎ 1983年 .....	33
“육의사(六義士)” 비행기 탈취사건 .....	33

◎ 1984年 .....	34
초등학교 입학 .....	34
타이완 맥도날드 1호점 개업, 하이산(海山) 탄광 폭발사건 .....	37
“죽연방(竹聯幫)” 보스 천치리(陳啓禮)와 장난(江南) 사건 .....	39
◎ 1985年 .....	41
제10 신용합작사 사건 .....	41
이들은 그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 .....	43
초등학교 교재의 “장개석 이야기” .....	46
초등학생 시절의 어느 날 .....	49
◎ 1986年 .....	53
사회 운동의 계몽 .....	53
국민들을 놀라게 한 “민진당 창당” .....	55
◎ 1987年 .....	57
“대륙수복”의 희망이 사라지다 .....	57
중국친족방문의 개방 .....	58
계엄령 해제 .....	61
◎ 1988年 .....	63
장경국의 별세 .....	63
서울올림픽 .....	66
“5·20 사건” .....	67

## 역자 서문

廖信忠의 <我們臺灣這些年>은 1977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30년간 타이완에서 일어난 정치적 격변과 각종 사회문제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또한 당시 작가가 겪어온 일들을 생동감있게 서술하고 있다.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통일 방안 협상이 활기를 띄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당 패퇴 이후 타이완 근현대를 이해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또한 타이완과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77년 작가의 출생부터 장경국이 세상을 떠난 1988년까지 번역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79년 타이완 당국과 미국과의 '국교단절', 1980년 미려도 사건, 1986년 민진당 창당, 1987년 계엄령 해제 등이 있다.

작가는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중국친구들에게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최대한 그 형식에 맞게 편안한 느낌으로 번역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고유명사는 모두 발음대로 표기를 했다. 하지만 '손문', '장개석', '장경국'과 같이 잘 알려진 고유명사에 있어서는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를 했다. 한편 필요한 부분에는 역주를 달았다.

비록 1977년부터 1988년까지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진 않지만 이 논문을 통해 타이완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1977

유엔 축출, 혼란에 쌓인 타이완

나는 1977년에 태어났다. 70년대 말 타이완 사회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풍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지만 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흡사했다. 중요 사회 인프라건설이 곧 완성되어 가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모두가 “그 풍선이 터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기의 타이완은 이후 정부의 선전문구를 인용한다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타이완정부가 유엔에서 축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1978년 말 미국과의 외교도 단절되었다. 인심이 흥흥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단 좋은 사람들은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완정부는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침착할 것(莊敬自強, 處變不驚)”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물론 더 이른시기인 1949년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도피한 후 70년대 까지, 이 수십년 동안 타이완 반대인사들은 시종일관 국민당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마치 개가 기차를 향해 짖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었다. 70년대에 이르러 대내적으로 여러 상황이 겹치는 가운데 타이완 정세는 마치 폭풍이 불어 닥치는 것처럼 복잡했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또한 “당이 곧 모든 것이었던” 시대에도 사회적으로는 국민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잔잔한 물결이 파도를 이루듯 점점 거세져갔다. 하지만 국민당은 여전히 일관적인 통치 방식을 유지하면서 혼란은 계속되었고 우리집과 같은 평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몇 사건에 말려들었다.

나의 생일은 11월이다. 그런데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은 그 해 3월 29일이었다. 나는 나이가 좀 들어서야 (시간상)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걸핏하면 엄마에게 “아아.....내가 조산아였구나.”라며 놀리곤 했다. 아주 보수적이었던 우리 엄마는 내가 놀릴 때마다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하셨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아버지는 타이완 중부 원린(雲林)현에서 태어나셨다. 전통적으로(지금조차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데 원린은 시골이자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비교적 빈곤한 지역이다 보니 그 사회적 분위기도 좀 거칠어서 사람들은 깡패들의 고향을 연상하곤 했다. 한편 우리 어머니는 타이난(臺南) 사람이다. 타이난은 타이완에서 가장 일찍 개발된 지역이라 할 수 있었는데 문화수준이 높았고 예전부터 사람들은 타이난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었을 때 타이베이(臺北)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 원래 약품 공장에서 영업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타이완 북쪽 지역의 모든 판매 총책을 맡으셨다. 타이완 고속도로가 막 건설되었을 때는 자가용이 많이 없던 시대라 다니는 차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속도로를 파리만 날리는 쓸모없는 곳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시대에 아버지는 이미 차를 구입하셨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시골을 떠나 타이베이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전형적인 상인의 삶을 사셨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타이난에서 타자점을 차리셨는데 아버지 회사의 타이난 본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그때부터 서로 알게 되셨다고 한다.

부모님께서서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976년에 타이베이에서 장사를 시작하셨고 내가 3살이 되기 전까지 타이베이 스린(士林)의 옛 집에서 살았다.

그 해 말, 타이완 전역을 뒤흔든 “왕싱난(王幸男) 우편물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시에동민(謝東閔) 당시 타이완성 주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왼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이 일은 국민당 고위층을 발각 뒤집었다. 나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기억에 따르면 그 때는 컴퓨터로 지문을 분석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지문조사에 동원되어 타이완의 군복무를 마친 모든 남자들의 지문을 일일이 검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수십만 부의 자료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결국엔 왕싱난이라는 자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정치에 불만을 갖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싱난 집의 제약 공장이 바로 아버지가 일하시던 제약 공장이었다.

아버지의 기억에 따르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후에 아버지를 어떤 곳으로 연행하고는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는지, 애인은 있는지,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당시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였다), 제약 공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24시간동안 물어보더니 결국엔 각서를 쓰고 나서야 풀어줬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당시 여자 친구였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제들까지도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국민당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이 아마 그 때부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시 국민당 당원으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다 남아 해진 국민당증이 남아있다. 하지만 매번 아버지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한 적이 없고 당비도 한번 내본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아버지를 대신해 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지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장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당 당원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교관이나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차별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국민당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순순히 입당서를 작성했다. 또한 군에 입대할 때에는 부대 교관들도 입당을 요구했다. 타이완 같은 징병제 시스템에서 특히 과거처럼 입대하면 2~3년씩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하던 그 시절에는 국민당 당원이 되면 부대 안에서 아마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 당원이 되었다.

아마도 현재 사오십 대 남자들 가운데에는 국민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한번도 당비를 내본 적이 없고 활동에 참가한 적도 없는 “유령 당원”이 되었던 것이다. 얼마 전 국민당이 당원들의 자료를 정리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민진당과 재야인사들이 예전에 국민당 당원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1978

장경국(蔣經國)의 연임과 “십대 건설”

1978년, 장경국이 취임했다.

매년 “신해혁명 기념일” 열병식때 장개석(蔣介石)은 군복을 입고 꼳꼳한 자세와 힘있는 어조로 “군민 동포 여러분.....”하고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타이완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후임자 장경국은 온화한 손짓과 차분한 어조로 “친애하는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저장(浙江)지역 말투였다. 민감한 사람들은 이 말 속에서 시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장개석이 “붕어”(그렇다, 당시 신문지상에서는 이러한 봉건적인 어휘를 사용했다)한 후, 부총통 옌자간(嚴家淦)이 취임하였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행정원장인 장경국에게 있었고 옌자간은 허울뿐인 총통으로 당시 모두가 그를 “에스맨”이라고 불렀다. 2년 후의 장경국의 후계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씨 가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당시 유행하는 정치 농담이 있었다. 장개석이 세상을 떠나고 천당에서 “국부”인 손문(孫文) 선생을 어쩔 수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손문은 “중화민국”의 상황을 매우 궁금히 여겨 장개석에게 물었다.

“내가 죽은 후에 ‘중화민국’은 헌정을 실시했는가?”

장개석이 즉시 대답했다. “네, 그럼요. 헌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손문이 또 물었다. “그럼, 1대 총통은 누구인가?”

장개석은 대답했다. “저입니다.”

손문은 속으로 장개석이 전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럼, 2대 총통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 때 장개석은 또 다시 자신이라고 대답하기가 부끄러웠고 또한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위여우런(于右任)<sup>1)</sup>(余又任: ‘자신이 또 맡았다’는 뜻)

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손문은 매우 기뻐하며, “아주 좋군. 서예가가 총통이 되어 문치국가가 되었군, 그럼 3대 총통은 누구인가?”

장개석은 머리를 굴리더니 재빨리 “우싼롄(吳三連)<sup>2)</sup>(馮三連: ‘자신이 세 번째도 연임했다’는 뜻)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쑨: “음, 언론계에서 총통이 나오다니, 그것도 좋지. 다음은 누구인가?”

장: “자오위엔런(趙元任)<sup>3)</sup>(照原任: ‘원래 하던 사람이 연임했다’는 뜻)입니다.”

손문은 생각을 하더니 “아주 좋아, 언어학자가 총통이 되었군. 5대는 누구인가?”

장: “네.....자오리리엔(趙麗蓮)<sup>4)</sup>(照例連: ‘원래대로 연임했다’는 뜻)입니다.”

손문은 매우 기뻐하며, “아주 좋군. 교육가도 총통이 되었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는 장씨 가문을 풍자하는 전형적인 일화다. 사실, 장개석은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영향을 끼쳤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도 학교에서 “장공(蔣公)<sup>5)</sup> 유혼”을 외우게 했고, 음악 수업시간에도 “장공기념가”를 배웠다. 선생님께서 매번 장개석이나 “국부” 손문 선생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들은 바른 자세로 앉거나 차렷자세로 존경의 표시를 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일 년 전인 1977년에 중산(中山)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이는 타이완 남북 400여 킬로미터를 잇는 고속도로로 타이완의 첫 번째 고속도로이다.

당초 건설을 진행할 때는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비평했었다. 당시에는 자가용이 많지 않아서 그 도로를 다니는 차가 거의 없었고 그야말로 부자들의 전용 도로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이 고속도로는 타이완 서부의 3대 항구 간 물류를 원활히 하여 타이완 경제에 큰 공헌을

---

1) 于右任: 유명한 서예가이자 정치가

2) 吳三連: 유명한 언론가

3) 趙元任: 언어학자이자 음악가

4) 趙麗蓮: 유명한 영어 교육가

5) 蔣公: 장개석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

하였다. 심지어 세월이 흘러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이 고속도로는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내 또래 대부분은 아버지가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이 고속도로를 지나 중남부 고향으로 갔던 일들이 있을 텐데 차가 막혀 몇 시간을 지체한 경우도 있었다. 원래 남북 왕복은 4시간정도 걸렸는데 차가 막힐 때는 거의 10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더 오래 지체될 경우도 있어 마치 주차장처럼 변하기도 했다. 저녁에 보면 자동차 불빛이 마치 붉은 용처럼 지평선의 일부를 들들 휘감은 것 같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고속도로는 교통 기능 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일부 도로에는 전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10대 건설”이 계속해서 마무리되었다. “10대 건설”이란 1970년대 타이완에서 진행하던 사회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과거 타이완의 도로, 항구,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은 분야의 공공 인프라 건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낡은 상태였다. 게다가 1973년 10월 제 1차 석유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제 불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발전을 향상시키고 심화하기 위해 정부는 10대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각각 원자력 발전소, 중정(中正) 국제공항, 철도 전기화, 타이중(臺中)항, 중산(中山) 고속도로, 제강소, 조선소, 석유화학공업, 쑤아오(蘇澳)항, 베이웨이(北迴)철도이다. “10대 건설”중, 6개 항목은 교통 운수 건설이고, 3개 항목은 중공업 건설, 1개 항목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이다.

당시 “행정원장”<sup>6)</sup>을 맡았던 장경국은 “10대 건설”을 계획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타이완 경제는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고 국민 경제 소득이 아직 높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당시 1차 석유위기와 유엔에서 축출되는 등의 외교적 어려움까지 겹쳐 “10대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그 프로젝트를 반대했는데 장경국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며 강건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야 진행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10대 건설”은

---

6) 행정원장: 국무총리에 해당

빛을 내서 완성한 것이었다. 장경국의 정책 결정이 정확했음을 증명하듯 확실히 타이완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타이완 경제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10대 건설”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장경국은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였는데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부가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 모두가 잘 살자는 목표 아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사회도 안정된다고 생각했다. “10대 건설”중 7개 프로젝트가 경제 건설로 타이완 미래에 있어서는 어떠한 발전 전략을 취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건설이었다. “10대 건설”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은 분명 타이완에 새로운 생활을 가져왔고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지식과 경제 능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정치적 개방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고 이전의 엄격한 정치 통제체계는 이미 국민들의 요구에 점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 1979

### 우리 가족

1979년 타이완은 평온치 못한 한 해였다. 1월 1일, 미국과 타이완은 단교되었고 연말에는 “미려도(美麗島) 사건”도 발생하여 정부는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1979년의 최대 사건은 바로 해외 관광의 개방이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나 공무, 유학 등의 경우에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유가 없어도 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홍콩은 순식간에 타이완 사람들에게 “점령”되었다.

우리 집에도 큰 경사가 생겼다. 바로 그 해 여름 여동생이 태어난 것이다. 1970년대 말, 타이완 정부가 장려하던 출산정책으로 “하나도 적지 않고 둘이 딱 좋다”는 모두가 외우다시피 하는 표어가 있었다. 그리고 “삼삼삼일”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는 결혼하고 3년 후 첫 아이를 낳고 다시 3년 후 둘째를 낳는 것을 말했고 또한 가장 이상적인 결혼 적령기로 남자는 28세, 여자는 25세인 3살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부모님은 정부의 구호에 호응하여 우리 남매를 낳았고 아주 정석대로 중산계층 가정의 대열에 올라섰다.

예전에 타이완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아버지만해도 7남매이고 어머니도 5남매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뭔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과거에 타이완은 비교적 가난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적게 낳을 것을 장려했다. 이 때 “두 자녀가 딱 좋고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다”라는 표어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딸이라는 말을 아들보다 앞에 썼는데 이는 “남아선호사상”의 관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후에 저출산 붐이 일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자식 둘도 좋고 셋은 더욱 좋다”라는 표어로 다시 바꾸어 국민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했다.

어찌됐든, 나는 한 살 차이의 여동생이 생겼다. 나이대가 비슷해서 오빠가 여동생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어려서부터 줄곧 싸우며 지냈다. 동생이 내 팔뚝을 물면 나는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끊임없이 싸워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매의 정은 깊어갔다.

그 해 우리는 가족사진을 찍었다. 엄마는 여동생을 안고, 아빠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고 나는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 타이완 정부, 미국과의 “단교”

1979년 1월 1일 0시를 기해 타이완은 미국과 단교되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의 타이완정부는 타이완이 중국의 정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개석 시대에는 줄곧 극단적인 원칙에 따라 양안문제를 처리해왔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타이완의 입지는 저절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단교”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민간운동은 대국 간의 정치게임 속에서 무기력해

보이기만 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든든한 뺨이 없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 대규모의 이민 붐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장경국은 그 해의 제야 연설에서 “난관을 극복하자”라는 말을 했다.

당시 “정보국장”을 맡았던 쑹추위(宋楚瑜)는 기자회견에서 “단교사건”에 대한 타이완의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의 잘생긴 외모는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면서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 되었다. 당시 타이완 국민들의 마음이 극도로 동요되던 시기에 유명 가수 허우더젠(侯德健)은 <용의 자손(龍的傳人)>라는 곡을 발표했다. 가사에는 고대 중국의 장엄함과 위대함, 근대 중국의 어려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했다. 이 노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당국의 지지아래 타이완과 국내외의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졌다.

사회에서는 “타이완을 사랑하자”라는 운동이 불기 시작했다.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아이가 미국과 “단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속에 적개심을 불태우며 자신의 돼지 저금통에 있던 돈을 모두 모아 당국이 비행기 대포를 사는데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좀 더 자란 후에 생각해보니, “비행기 대포” 역시 미국에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단교”를 한 후 미군은 타이완에서 철수하였고 “타이완관계법”을 채택하였다. 미국정부는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타이완 정부는 스스로 “자유의 등대”를 자처하고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을 다독였지만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륙수복(反攻大陸)”<sup>7)</sup>이 이미 물 건너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부에서만 계속해서 외쳐댔을 뿐 사람들의 호응은 점점 약해져갔다.

물론, 미군 때문에 발생했던 경제활동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군의 사생아 문제는 1980년대에 많은 영화와 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허우더젠은 1983년도에 몰래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이로 인해 타이완 정부는 <용의 자손>이라는 곡을 금지시켜 버렸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사건이 되었다.

---

7) 反攻大陸:: 대륙국토 수복



1980

80년대의 타이완 방송

“미려도 사건”과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재판은 타이완 민주화 과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당시 타이완 사람들에게 안겨준 놀라움이나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미래 등 이런저런 면을 봐도 그 영향은 아주 대단했다.

그 당시 나는 어려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많은 것들은 나중에 어른들에게서 듣게 되었다. 그 시대에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다. 정부는 자유롭지도 않고, 사회 정황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욕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몇몇 언론을 통제하였고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다. TV채널이 개방되기 이전에 타이완의 지상파 방송국은 겨우 세 개에 불과했다.

먼저 타이완성 정부 소유의 타이완TV가 있었는데 이는 타이완의 첫 번째 방송국으로 농어민들의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타이완TV의 방송이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민당 소유의 중국TV가 있다. 대부분 국민당 활동에 관한 것으로 예전부터 비교적 “당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하나는 군 소유의 중화TV가 있다. 매주 목요일에 “거광원지(莒光園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부대 안의 모든 군인들은 매주 목요일에 이 프로그램을 보며 세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녀 사회자가 나올 때 까지 즐기 일쭤였다.

1970년대 타이완TV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방송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을 올린 프로그램은 바로 민남어 포대극 “운주대유협사염문(雲州大儒俠史艷文)”이다. 포대극은 일종의 인형극으로 당시 낮에 방송이 되었는데 정오만 되었다하면 길거리에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시청률이 거의 90%이상에 달했다. 나중에 인기가 너무 많아 정부는 “생산 활동을 방해 한다”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내렸다고 한다.

비록 당시에 세 방송국이 있었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지도하던” 시기였기 때

문에 그 보도 내용은 모두 정부의 심사를 거친 것이었고 모두 비슷했다. 세 방송국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 연합 방송을 했는데 세 방송국에서 각각 담당 PD와 사회자를 파견해 한 부분씩 일을 맡아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각자의 특색이 있었다. 타이완TV는 뉴스에 능했는데 현재의 많은 유선 뉴스방송의 사회자들이 모두 타이완TV 출신이다. 중국TV는 드라마에 능했다. 타이완의 첫 번째 연속극 <징징(晶晶)>이 바로 중국TV에서 방송된 것이었고 많은 중국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경요(琼瑶)의 드라마 <매화삼농(梅花三弄)>, <황제의 딸(還珠格格)> 역시 중국TV에서 방송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많은 드라마가 중국에 외주를 주거나 혹은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아예 중국 드라마를 사들여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이 약해졌다. 중화TV는 군 소유의 방송국이었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능프로그램에 능했다. 장샤오옌(張小燕), 후과(胡瓜) 등의 많은 유명MC들이 모두 중화TV 출신이다.

주제를 벗어났는데 이제부터 미려도 사건 이야기를 해보자.

#### 미려도(美麗島) 사건

민진당(民進黨) 창당 이전 타이완은 진정한 의미의 야당이 없었다. 국민당외에 명목적으로는 청년당(青年黨)과 민사당(民社黨) 등이 있었고 매년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당을 위협할 수는 없었다. 이 두 정당은 단지 “보아라, 우리에게도 다른 정당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당시 타이완은 국민당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다.

당시에 당외(黨外)라는 말이 있었다. 국민당 통치시기에 타이완 사회에서는당을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예전에 권력에 반대하고 자유주의를 외치던 조직이나 개인은 잡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내세웠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거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서로 연합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백색테러(白色恐怖)라는 말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밝히진 않겠

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 이 단어가 타이완에서 갖는 의미는 국민당이 타이완을 통치한 이래로 반대 인사들이나 혐의자를 숙청하고 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완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의견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법률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여했지만 실제로 그 자유의 해석은 완전히 국민당의 손에 달려있었다.

1970년대 이전, 이른바 “동원감란(動員戡亂)”<sup>8)</sup>이라는 체제가 있어서 타이완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었다. 1969년에 이르러서야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을 수정했지만 이 역시도 “국회의석” 중 일부만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1949년 타이완에 온 중국 각 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자 보충해야 할 공석이 생겼고 이로 인해 당외 반대인사들은 드디어 체제 내에 진입하여 발언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당은 운동경기로 말하자면 선수이자 심판이 되어 모든 규칙들을 그들이 정했으므로 일반인들은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민당과 당외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어 갔다.

이 시기의 반대 운동은 예전과 달랐다. 흩어져 있는 탁상공론하는 선비가 아니고 무소속 지방 토호세력도 아닌, 그야말로 정치와 사회사상을 결합시킨 “행동가”들이었다. 사람들은 또한 “대륙수복”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1949년 이후 국민당 정치인의 통치 정당성, 그리고 정치권력의 분배도 점차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타이완 출신의 정치 인사들은 점차 중요한 반대 세력이 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미려도>라는 잡지가 출간되었다. 이는 각지에서 모여든 당외 인사들이 창간한 것으로 엘리트들이 대거 모여 정치 세력을 이루었다.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압된 정치를 펼치던 시대에 이러한 잡지가 창간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자연스레 즐겨 보게 되었다. <미려도>는 타이완 전역에 사무소를 두어 강연회를 가졌고 많은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정

---

8) 동원감란(動員戡亂): 국민당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반란단체’로 규정하고 ‘감란’, 즉 반란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타이완에 대해 군사독재통치를 실시한 것

부는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미려도> 까오슝(高雄) 사무소는 1979년 12월 10일 국제인권일에 거리집회를 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경찰과 참가자들간의 심각한 충돌로 번졌는데 그 규모는 타이완 역사상 전무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충돌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에서 사람을 시켜 대중에 섞이도록 한 뒤 일부러 경찰을 공격하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은 없다.

이 사건으로 당외 진영의 주요 인물들은 거의 체포되었고 당시 타이완의 반대운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장경국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개방의 행보를 가속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건의 결과와 이후의 재판은 분명 정치에 무관심한 많은 타이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타이완의 앞날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계몽의 기점이 되었다.

#### 천수이벤(陳水扁)의 일생을 바꾼 “미려도 재판”

1980년대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타이완에서 국민당의 엄격한 체제 역시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해의 미려도 사건 재판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려도>잡지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일망타진되었고 당시 당외 참여자들은 모두 수감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색채를 띠었다. 이 “정치단체”는 그야말로 완전히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물 8명인 황신제(黃信介), 스밍더(施明德), 장권홍(張俊宏), 야오자원(姚嘉文), 린이슝(林義雄), 천취(陳菊), 뤼슈롄(呂秀蓮), 린홍쉬엔(林弘宣)은 모두 “반란죄”로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 영향과 반발은 매우 컸다.

이번 판결은 타이완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인권 단체와 언론의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국민당은 자신들의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재판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많은 제한이나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신문보도에서 사건

의 판결과 진술 전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록 법정에서 경찰을 습격한 증거물들을 많이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대진술들은 이미 “경찰 습격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이완 미래에 대한 관심과 타이완의 국제지위에 대한 재정립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법정은 마치 그들의 정치 소견의 발표장이 된 것처럼 모두가 차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미려도 재판”에 관한 한 가지 우스갯소리가 있다. 미려도 군법 재판 때, 뤼슈렌은 “打拼”이라는 말을 했다가 죄가 추가되었는데 이 말은 민남어(閩南語)<sup>9)</sup>로 노력하고 고군분투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군사법관은 이 말을 “때리고 싸우다”로 잘못 이해하여 그녀에게 죄목을 하나 더 덧붙였다.

재판과정이 이렇게 날날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진술들은 타이완 국민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듯 했고 마치 정치 교육수업을 받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당시에는 군사계엄 해제와 “국회”의 전면 재선거 등과 같은 말들을 호환마마처럼 여겨 이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반란분자”나 “야심가”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그들의 이러한 요구들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미 당연한 권리가 되었다.

“미려도 군사재판”과 동시에 타이완을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린씨 일가족 살인사건인데 ‘린’은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인 린이슉(林義雄)을 말한다. 2월 28일, 자택에서 그의 어머니가 칼에 13번 찔리고 7살 된 쌍둥이 자녀가 단칼에 목숨을 잃었고, 첫째 딸은 6번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응급 구조를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의 부인은 외출한 상태라 불행 중 다행으로 화를 입지 않았다. 이 사건은 타이완과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데 살인범의 수법이 매우 전문적으로 단도로 찌른 후 다시 가로로 갈고리 걸듯 그어 하나하나의 칼질이 모두 목숨을 노린 것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이 재판이라는 민감한 시기였고 더욱이 2월 28일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 암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설사 정말 국민당이 한 짓이라고 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게 뻔했다. 경찰에서는 “국제적 음모집

---

9) 민남어(閩南語): 주로 복건 남부와 타이완에서 쓰는 말

단”의 짓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린씨 일가족 살인사건’이 미려도 사건 이후 나날이 들고 일어서는 당외 반대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국민당이 취한 경고라고 생각했다. 즉 타이완 모든 사람들과 국민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이완의 “2·28”사건을 재현한 것이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 주관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고 경찰의 당시 수사 방향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린이슉이 감옥에 있을 때, 식구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집을 팔고자 했지만 감히 사는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장로교회에서 그 집을 사들여 교회로 사용했다. 매년 2월 28일이 되면 1947년의 “2·28”사건을 기념하는 것 외에 많은 사람들은 린씨 일가족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 매년 이 곳에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고 이는 항상 뉴스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린씨 일가족 살인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 일을 이야기 할 때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침울해진다. 타이완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누구나 린이슉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를 “인격자”라고 부른다. 또한 항상 타이완이 린이슉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미려도 사건 변호사들은 모두가 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열혈 변호사들이었다. 비록 예견된 판결이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사회를 감동시켰고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점차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판결 이후 당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반대 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정치적 핵심인물이 되었는데 천수이벤(陳水扁), 세창팅(謝長廷), 쑤전창(蘇貞昌), 장권슉(張俊雄) 등이 모두 당시의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의 변호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국민당에는 당시 정부의 대변인인 쑹추위 신문국장(蔣經國)이 있었는데 국민당이 발탁한 엘리트 중 한명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 대변인의 역할을 해왔다. 이 후 수십 년 동안 양측의 주요 인물들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뒤엎히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

현재 타이완은 국민당과 민진당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려도 사건이 타이완의 개방을 가속화 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타이완 경제 발전이 가져온 정치 참여의식과 정보공유의 요구로 인해 정치다원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예전에 이들의 이러한 정치적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타이완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1981

유치원 시절, 어린 시절의 “신해혁명 기념일”

내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쯤, 우리 가족은 세를 내고 살던 옛 집에서 타이베이시의 텐무(天母) 지역, 양명산(陽明山) 아래에 위치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원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산 집이었는데 새로운 곳이 낯설어서인지 예전에 사시던 원린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텐무는 환경이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었다. 미군이 철수하기 이전 이곳은 장교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국식 단독 주택이 남아있다. 우리의 새 집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첫 고층건물이었다. 200평방미터정도 되었는데 당시에는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이어서 바로 샀는데 몇 년 후, 맥도날드가 생기면서 주변 집값이 그렇게 오를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가 막 이사를 왔을 때, 그 근처는 대부분 밭과 목재장이었고 공기도 아주 맑았다. 그 때를 생각하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며 간식을 팔던 할머니가 인상에 남는다.

이 때, 나는 여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일부러 여동생을 괴롭히곤 했다. 아이들의 성질이란.....

서너 살 때 나도 유치원에 들어갔다. 유치원은 교회에서 고아원으로 운영하던 곳이어서 굉장히 컸고 매일 그곳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보냈던 것 같다.

유치원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이 그저 하루 종일 놀고먹기만 한 것 같다. 아니

면 똥 속에 폭죽을 넣고 터뜨린다거나 여자 아이들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등 선생님이 싫어할 일들만 골라 했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국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10월인가. 당시에는 “찬란한 10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말이다. 10월에는 “신해혁명 기념일”과 “타이완 광복절”, 그리고 장개석 탄생기념일이 연이어 있다. 이 달에는 여기저기 국기가 걸려있고 TV에서도 아주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다시 말해 10월은 “되도록” 천재지변이 발생해선 안되고, “되도록” 사회사건이 발생해선 안되는 달이었다. 하지만 리덩휘(李登輝)가 총통이 된 뒤 어느 신해혁명 기념일 아침 한 대의 군용비행기가 타이베이 공항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날 기념식 내내 리덩휘의 얼굴은 마치 똥을 씹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신해혁명 기념일”이 되면 세 방송국은 간판 아나운서를 내세워 뉴스를 보도했는데 어느 방송국에서는 동시에 10명의 아나운서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럼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 경쟁에 질세라 20명의 아나운서를 세 줄로 앉혀서 돌아가며 뉴스를 보도하도록 했다. 물론, 세 방송국은 수년 동안 연합해왔기 때문에 각 방송국의 간판 아나운서들이 세 줄로 앉아 릴레이 보도하는 곳에 함께 나오기도 했다. 10월 한 달동안 모든 거리마다 기념일을 축하하는 기념물과 표어들이 걸려있고 온 도시는 붉은 물결로 장식되었다. 특히 “총통부” 앞 대로인 제서우루(介壽路)에는 신해혁명 기념일을 대표하는 “十十”<sup>10)</sup> 모양의 기념물을 세웠고 또 그 전체에 등불을 달아 반짝반짝 빛나도록 했다. 매년 이 점등식은 아주 큰 행사가 되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설날을 제외하고는 그 날이 제일 시끌벅적했다. 어린 아이들은 10월에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에 부풀어 좋아했다.

“신해혁명 기념일”이나 장개석 탄신일이 되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작은 깃발이나 표어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뜻도 모르는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 나름대로 기념일을 즐겼다. 앞에는 항상 한 아이가 북을 치며 걸어갔는데 모두가 마

---

10) 十十: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 기념일



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행진했고 이 모습을 보는 어른들도 박수치며 환영 해주었다. 오늘날의 영어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때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사탕을 얻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어쨌든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념하는지는 몰랐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은 비록 엄숙한 것이었지만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놀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좋을 뿐이었다.

이 해에 영국의 다이애나와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이 있었다. 전 세계가 TV를 통해 왕자와 공주의 환상적인 결혼식을 보았고 우리 아버지도 TV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다. 특히 다이애나의 우아한 헤어스타일은 당시 타이완 남자들의 이상이 되었고 아버지는 한동안 어머니에게 자꾸만 그 머리를 하라고 꼬드겼었다.

타이완 민주주의 싹

1981년이 되었다.

1979년 타이완정부는 미국과의 단교로 인해, 또한 정국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선거를 중단했다가 미려도 사건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선거를 재개했다. 당시 미려도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감옥에 있었지만 가족들은 “남편을 대신해 출정한다(爲夫出征)” 등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고 모두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미려도 재판”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점차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세창팅(謝長廷)과 천수이벤(陳水扁)이 바로 우리 동네였던 타이베이 제1 선거구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 그들은 서로 협력을 하면서도 경쟁을 하고, 때로는 적이 되었다가 때로는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관계는 거의 그 시기에 형성된 것이었다.

물론, 타이완의 민주발전은 미려도 사건 이후 몇몇 시위자들이나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국민정부 시기 천청(陳誠)이 성주석(省主席)이 되어 지방자치 추진을 시작으로 정부의 권위 하에 있던 각 지방대표 선거, 그리고 장경국

후기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미려도 사건은 그 모든 것을 가속화하고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비록 정식으로 조직된 당은 없었지만 당의 인사들은 “당의 후보자 추천회”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를 내세웠고 이는 모두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데리고 유세장에 가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던 기억이 난다. 후보자들의 본인 연설 외에 소위 말하는 유명인사의 지원유세 활동은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다. 이들은 뛰어난 말재주로 정부를 풍자해서 많은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그곳은 이미 일반적인 유세의 원래 의미를 초월한 곳이었다. 그렇다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꼭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곳은 바로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공간이었다.

또한 인상 깊은 것은 그런 유세장에는 소시지 파는 노점상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당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가판대에 그릇을 두어 주사위를 던져 소시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유목민처럼 당의 인사들이나 이후 민진당의 집회를 따라 사방으로 이동했다. 소시지구이 말고도 찹쌀소시지와 음료수 등도 있었다. 이런 소시지 노점상을 당시에는 “민주소시지”라고 불렀다. 상상해 보시라. 많은 구경꾼들과 향의자, 기자, 심지어는 경찰까지 다함께 소시지를 먹으며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을 말이다. 그리고 옆에는 책을 파는 노점상도 있었는데 서점에서 볼 수 없는 금서와 시위운동 녹화테이프, 그리고 그 테이프들 사이에 끼어있는 몰래 들여온 포르노 등을 팔았다. 이것이 바로 예전 타이완 민주운동의 독특한 모습들이었다.

이전의 타이완 국민들은 국민당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수십 년 동안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국민당의 지지율이 왜 여전히 그렇게 높았을까? 만약 이 모든 것을 국민당의 강압적인 통치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국민당이 원한 것은 단지 정치의 절대 권력뿐이었다. 기층사회와 개인, 전통의 공간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관리를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타이완의 모든 지역에서, 설사 아주 외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당이 설치한 “대민봉사소”를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까놓고 말해 이곳은

바로 당 지부였다.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이곳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표발다지기를 하며 심지어는 표를 사는 장소가 되었다.

국민당 조직은 곳곳에 침투되어 있어 이장, 농어회, 종친회에서 각종 사회단체, 공영사업, 군인 가족촌 주거단지, 부대 등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당시 타이완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밀한 조직망은 선거 때, 특히 지방 선거에서 강력한 동원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국민당은 줄곧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자신들의 후보자를 당선시켰고 또한 오랫동안 지방 정치세력과 맺어진 그들의 관계는 당외 인사들의 정치입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82년 1월, 덩샤오핑(鄧小平)은 연설에서 “예젠잉(葉劍英)의 9개 조항”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동안 타이완 국민들은 공산당이 “타이완을 피로 씻으려 한다(血洗臺灣)”는 교육을 받아 왔다. 그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피로 씻겨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곤 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타이완 국민들은 비로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해의 “예젠잉의 9개 조항”과 다음 해 랴오칭즈(廖承志)가 장경국에게 보낸 공개편지에 대해 장경국은 여전히 접촉하지 않고 회담하지 않으며 협상하지 않는다는 “삼불정책”을 주장하였다.

양안시대의 정치적 분위기는 바로 그랬다. 비록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를 두고 서로 큰소리를 쳐댔고 진먼(金門) 전선의 포격전도 이미 끝났지만 말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양안의 방송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감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타이완에서는 열기구 안에 광고지나 손목시계, 라디오, 통조림 등을 넣어 보냈다. 물론 대부분이 정부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 “민간조직”의 “자발적 행위”였다. 이 열기구는 기류를 잘 타면 쓰촨과 후난까지도 날아갈 수 있었다.

#### 천원청(陳文成) 사건

이 사건과 1년 전의 린씨 일가족 살인사건은 당시의 양대 정치적 미해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천원청은 타이완에서 해외로 유학을 간 학자로 당시 카네기 멜

론대학교의 교수였고 또한 미국의 9급 보험계리사 자격을 얻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1981년 7월, 천원청은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 시대의 유학생들은 타이완의 반대 운동에 대해 대부분 지지를 하는 편이었다. 그는 타이완으로 돌아온 이후 외국에 있을 때 <미려도>잡지에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총부(警備總部)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경비총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는 수십 년 동안 타이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경비총사령부(警備總司令部)이고 사실 국민당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존재하던 기관이다. 타이완 계엄령 시기에 경비총부는 치안과 민방위, 군중동원의 임무를 맡았고 출입국 관리사무도 담당했다. 일부 보여지는 모습은 오늘날의 경찰과 비슷했지만 그 권력은 경찰을 훨씬 압도하였고 당시 시대상황에서 생겨난 법적 근거가 없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업무는 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당시의 그런 배경 하에 경비총부의 업무가 국민들의 생활 각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엄격히 감시하고 있었고 “실수로 억울한 자를 죽이더라도 악당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통치심리가 존재하고 있어서 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상 비밀경찰 기관과 유사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당시를 떠올리며, 당시 아버지를 어떤 곳으로 연행했던 사람들이 아마 경비총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타이완에는 아주 유명한 속어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비총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면 경비총부라는 말이 타이완 국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압력과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천원청이 경비총부의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타이완 대학 도서관 옆에서 천원청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국민당은 처음에 “죄가 두려워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천원청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국민당이 “자살”이라는 말만 하면 국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 그 속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곤 했다.

천원청은 미국 시민이었다. 게다가 당시 타이완의 인권 상황이 국제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국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미국에서는 천원청의 동료와 부검의를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모든 정황이 그가 죽기 직전 학대를 받고 독살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고 모두가 경비총부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었고 살인범이 누구인지 밝혀내지도 못했다. 당시 정부에서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고 이로써 미해결 사건 중의 하나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해외 유학생 간첩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타이완에서는 그들을 “직업학생”이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이 국민당의 중산 장학금을 받고 타이완을 떠나 유학을 간 학생들로 다른 학생을 감시하고 밀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1982

<초류향(楚留香)>의 대유행

내가 유치원 중급반에 올라가자 여동생은 초급반으로 들어왔다. 동생은 마치 껌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서는 놓아주지 않았고 나는 그런 동생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놀지도 못했다. 행여나 동생과 놀아주지 않으면 동생은 대성통곡을 하기 일쑤였다.

나는 교재를 집으로 가지고와서 보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복습을 해주셨다. 장개석의 이야기나 문장이 있으면 나에게 들려주셨고 또 나에게 스스로 읽어보라고 하셨다. 그럼 나는 아버지가 “음”이라고 하실 때까지 이어서 읽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사람들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개석과 장경국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장개석이.....”라고 말이 튀어나왔는데 아버지는 크게 놀라시며 “말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꾸중을 하셨었다.

1982년, 타이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정치 사건이 아니라 홍콩 드라마 <초류향>의 방영이었다. 이는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타이완에 들어온 홍콩 방송국의 드라마였다. 세 방송국만 있던 시대에 이 드라마는 70%를 육박하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매주 <초류향>이 방송되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택시는 아예 다니지도 않았고 모두가 집에 돌아가서 <초류향>을 시청했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당시 타이완 드라마의 수준은 그야말로 형편없었다. 예전의 타이완 연극은 정말 어실프기 짝이 없는데 제작은 조잡한 촬영장 안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몇 개의 풀을 꽂아 놓고 사람이 그 옆에 앉아있으면 추격병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연극무대의 모습을 직접 상상해보시길). 그리고나서 겨우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하기 전에 서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참 지껄이다가 막상 싸움은 몇 초 만에 끝나고 말았다.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초류향>이 방송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정교한 제작과 막힘없는 스토리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많은 홍콩 드라마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방송국에서 홍콩드라마를 방영하기만 하면 나머지 두 방송국의 시청률이 추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초류향>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류향”, “무화(無花)”<sup>11)</sup>라는 식당이나 찻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술집에서도 “룽룽(蓉蓉)”<sup>12)</sup>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들이 많아졌다. 주말 저녁이 되면 남자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서 <초류향>을 보는 통에 술집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며 원망을 하기도 했다. 나와 같은 아이들은 광둥어를 몰랐지만 <초류향> 주제곡의 마지막 부분인 “은 산으로 나 홀로 가리, 배웅 할 필요 없네(千山我.....獨行, 不必相送)”라는 소절을 모두 광둥어로 부를 줄 알았다. 게임도 “탄지신공(彈指神功)”이 유행했는데 그냥 코딱지를 잘 문지르고는 튕기는 것이었다. 나중에 “은 산으로 나 홀로 가리.....”라고 부르던 주제곡(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제목을 모른다)도 장례식 발인때 반드시 연주하는 곡이 되었다.

---

11) 無花: 초류향의 등장인물

12) 蓉蓉: 초류향의 여주인공

나중에 타이완의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며 홍콩 드라마의 침략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홍콩 드라마는 4개월만 방영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이미 전 타이완 사회를 뒤흔든 <초류향>의 방송을 금지한다면 얼마나 큰 파문이 일겠는가! 이 제한으로 인해 중국TV는 절반을 방영한 이후 할 수 없이 <초류향>의 판권을 중화TV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중화TV는 그야말로 월척을 낚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홍콩 무협극도 큰 인기를 끌게 되자 당국은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 당시 VHS규격과 BETA규격의 비디오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많은 대여점에서도 홍콩 드라마 복제판을 대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대여점에서 복제판을 빌려보았다. 지금 타이완의 연대TV는 바로 홍콩 드라마 비디오의 출판대리를 하면서 시작한 회사다.

#### 김용(金庸) 소설의 금지

<초류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혹하게 금지되어버린 김용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주 오랫동안 김용의 많은 소설들이 금서가 되었는데 독자들이 읽은 소설은 대부분 불법 복제본이다. <사조영웅전(射雕英雄傳)>을 예로 들면, 당시 타이완에서는 그것을 <대막영웅전(大漠英雄傳)>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사조(射雕)”라는 단어가 모택동(毛澤東)의 시구에 나왔기 때문에 바꾼 것이었다.

또한 그 이전에는 “동사서독남제북개중신통(東邪西毒南帝北丐中神通)”도 문제가 되었다. 원인이 바로 “동사(東邪)”에 있는데, ‘동사’가 살고 있는 동쪽의 도화도가 타이완을 은유하는 뜻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금지가 되었다고 한다.

타이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타이완에 천잉진(陳映眞)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택수색을 당했는데 경찰이 그의 집에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발견하고는 “마크 트웨인은 막스의 남동생이 아닌가, 어째서 이런 책들이 있는 것이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역시 같은 이유로 당시 막스 베버의 많은 책들도 금서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佐拉)(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左拉라고 번역했다) 역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분명 현실주의 문학을 비판한 뛰어난 작가였지만 그의 이름의 발음이 “左”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좌파로 간주하였고 이렇게 해서 그의 책도 금서가 되어버렸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부는 이러한 유치한 “공산당 공포증”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 정부는 사람들이 간체자를 사용하는지 혹은 “중화민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조사하는 등 아주 사소한 일들도 크게 부풀렸다. 또한 해바라기나 해바라기 그림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고, 태양은 모택동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 신문사의 조판사 Augen이 침침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활자를 검사할 당시 “央”자와 “共”자가 같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실수로 “中央”이라는 글자를 “中共”이라고 인쇄해버린 것이다. 이 일로 모든 기자와 편집자, 편집장, 인쇄공장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하는, 잘못했다간 죄를 뒤집어쓰고 잡혀 들어갈 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비총부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의 강압적인 통치는 국민들을 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타이완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정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면도 가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타이완 사람들이 선망하던 직업을 보면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의사가 타이완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 된 것이며, 왜 매년 대입시험에서 최고점은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일제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은 타이완 사람들이 법이나 정치에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인재들은 의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이 통치하고 “2·28”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정치라는 것이 타이완 출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절망적인 것으로 느끼게 했기 때문에 타이완 출신의 일류 인재들은 계속해서 의과를 선택했고 정치와 법률 쪽은 다가가기도 두려워했다. 그



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숭고한 직업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타이난(臺南)과 같은 전통 문화의 색채가 짙은 곳에서는 더욱 심하여 자신의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랐고 딸은 의사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청대 이전에는 소위 지방유지는 전역한 관원이나 과거시험을 보았던 수재, 그리고 비교적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그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 일본 식민지시대에 이르자 과거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사나 교사, 농업 개혁 전문가 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 유력인사가 되었다. 예전에는 의사 외에 교사도 존경받는 직업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 사람들은 만약 남자이거나 이과생이라면 의사가 되길 기대했고, 만약 여자이거나 문과생이라면 교사가 되길 기대했다. 당연히 교사와 의사가 결혼하면 그야말로 선남선녀의 만남으로 이 역시 옛날 가정에서 아주 바라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왜 당시 당외 인사나 이후 민진당의 주요 지지자들이 거의 모두 남부의 의학계 인사들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타이완 사람들은 법률과 사법에 관련된 직업에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법은 마치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억지만 부릴 줄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검은색도 흰색이라고 말하는 일종의 도덕적이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져 왔다. 만약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법정 밖에서 상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타이완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정말 죽어서도 천당에 갈 수 없는 것으로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념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타이완 족군(族群)<sup>13)</sup>과 “외성인(外省人)”

---

13) 族群:: 한 국가 내에서 서로 차이와 대립이 있는 인구집단을 지칭한다. 그 정의와 경계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이 많다. 국내 학계에도 이 용어에 대한 번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족군 외에도 인종집단, 에스닉그룹(ethnic group) 등 번역이 있고 여기서는 ‘족군’으로 번역한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항상 엄마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들은 대충 얼버무린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자꾸 물어보자 “아빠가 엄마에게 주사를 놓더니 네가 태어났어.”라고 귀찮은 듯이 대답하셨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대답인 것 같다.

우리 가족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가정처럼 행복하게 지내왔다. 부모님은 중남부에서 타이베이로 와서 가정을 꾸리셨다. 부모님께서 서로 이야기할 때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민남어를 사용했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나와 부모님은 표준어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민남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을 아주 후회하고 계신다.

타이완은 이민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주로 4개 족군이 있는데 민남인(閩南人)(73.3%), 객가인(客家人)(12.0%),外省인(外省人)(13.0%), 소수민족(少數民族)(1.7%)으로 구성된다.

민남인과 객가인의 대부분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주해왔고 또한 수백 년 동안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족군이나 마을 사이에 “계투(械鬪)”<sup>14)</sup>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남인과 객가인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민남인 가운데 쑹저우(漳州) 사람들과 쉐저우(泉州) 사람들도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참혹한 상황들은 더욱 사람들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과거 타이완에는 각 마을마다 이른바 “권사(拳師)”가 있었는데 바로 실전 경험이 있는 무술가들이었다.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익힌 것은 백학권(白鶴拳)과 같은 실전적이고 공격성이 강한 권법이였다. 또한 그들은 마을 청년들의 무술을 훈련시키고 마을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오늘날 타이완 민간에는 송강진(宋江陣)과 같은 민속놀이가 있는데 바로 과거 전투 진형 중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유응공묘(有應公廟)”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옛날 싸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영혼들을 기념하고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소수민족 대부분이 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원래 평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한족이 오면

---

14) 械鬪: 부락이나 집단 간에 있었던 무기를 사용한 싸움

서부터 그들은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은 한족이면서도 민남인과 객가인들 사이에 자주 싸움이 벌어졌고 객가인들은 인구가 적어 불리했기 때문에 평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타이완의 객가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산중턱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식민지시대 이후부터 민남인들 간의 충돌은 억제되어 왔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내오고 있지만 일부 습관이나 오랜 경험에서 그들 간에 존재하는 감정의 골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민남인은 절대로 객가인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며느리를 고른다면 객가인을 골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객가의 여자들은 근면하고 알뜰하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고생을 꼭 참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여자가 객가인에게 시집을 갈 경우에는 객가의 시어머니들은 민남 여자가 예쁘지만 게을러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고생을 참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없어져갔다.

1949년 전후로, 약 20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에 들어왔는데 소수의 고관이나 고급장교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 나중에 국민당은 외성인들을 타이완 각지로 보내 살도록 했고 이렇게 해서 타이완 각지에는 어느 정도의 외성인들이 분포하게 되었다. 외성인들은 현재 타이베이시에 가장 많은 수(30%)가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오랫동안 타이베이의 모든 것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대에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다른 도시의 친구들보다 민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타이완에 들어온 외성인들은 대부분 당국에서 안배한 곳, 타이완에서 특별한 문화가 형성된 군인마을(眷村)<sup>15)</sup>에 거주하였다. 그곳은 전통적 타이완 사람들의 사회로부터 독립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에는 자신들만의 공공시설이 있고 중국 이미지를 약간 풍기는 정원도 있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그 안을 비밀스럽다고 여겼고 마을 안의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수십 년 동안 사소한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

15) 眷村: 군인 가족이 모여 사는 단지, 마을

본성인과 외성인을 “토란(외성인)”와 “고구마(본성인)”라고 부르곤 했다. 당시 군대를 따라 홀로 타이완에 온 장교들에게 국민당의 “대륙수복”이 성사되면 각자에게 농경지를 분배할 것을 약속하며 “전사수전증(戰士授田証)”이라는 증서를 발급했지만 대륙수복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는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들 대부분은 타이완에서 결혼을 했는데 타이완 본성인들은 국민당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노후가 매우 처량했다. 그래서 “전우의 집(榮民之家)”<sup>16)</sup>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두유와 짜배기튀김을 팔았다. 그리고 매일 오후가 되면 산둥(山東) 지역 말을 쓰는 아저씨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 근처에서 만두를 팔기도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빌딩의 관리원이나 청소부 같은 일을 했다. 이 외에도 “쓰촨식 매운 쇠고기면(川味紅燒牛肉面)”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는 원래 없는 음식으로 외성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타이완의 재료들로 발명한 음식이다.

또 하나 꽤 유명한 것으로 까오슝(高雄) 깡산(崗山)의 제일 유명한 특산품인 명더두반장(明德辣豆瓣醬)이 있다. 원래 깡산은 공군 사관학교 소재지로 국민당은 당시 청두(成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머물게 했고 이렇게 해서 군인마을이 형성되었다. 전역한 군인들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 고향의 특산물을 팔게 되었고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잘 팔리게 된 것이다.

물론 외성인 모두에게 행운이 따랐던 것은 아니었다. 비극적인 상황도 사실 더 많았는데 이는 시대의 산물이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많은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아래서 언급할 “리스커(李師科) 강도 사건”은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으로 그 주인공이 바로 전역군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

16) 영민(榮民): 전역, 제대한 군인

## 리스커(李師科)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사건은 바로 리스커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타이완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이었다.

리스커는 1949년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에 들어온 외성 전역군인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외성 전역군인처럼 많은 전투에 참여했었고 전역 후 다른 일거리가 없었기에 택시 운전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큰 범주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총을 들고 은행을 털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돈은 국가의 것이고 목숨은 나의 것이다. 난 단지 천만 위안이 필요할 뿐이다!”

당시 아이들은 경찰놀이를 할 때 이 말을 자주 따라했다. 경찰 역을 맡은 아이는 항상 “리스커! 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라고 외쳐댔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으면 엄마에게 꿀밤을 맞기도 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갔고 그의 범행 동기 역시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었다.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이 외성 전역군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극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리스커의 은행 강도 사건은 정말 큰 파문을 일으킨 뉴스였다. 리스커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사회에서는 타이완의 역사를 “리스커 전”과 “리스커 후”로 나누기도 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자신만만하게 “인류의 역사는 니체 전과 니체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렇듯, 리스커는 비주류 역사에서 이미 아주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리스커 사건 이후에 <대도 리스커(大盜李師科)>와 <리스커의 마지막 봄날(李師科最後的春天)>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다. 나는 두 영화를 모두 봤는데 마지막 부분은 모두 리스커가 법정에서 내려오면서 “나는 할 말이 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 전역군인, 특히 하급 사관은 거의 모두가 전형적인 중국 농민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도 눈길조차 받지 못하

는 그런 존재였다. 과거에 그들의 이미지는 “충당애국”과 “절대복종”이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국가의 혼란과 가난, 고향에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어왔고 전쟁에 그들의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한 개인이 숨어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국민당의 충성스러운 부대였기 때문에 함께 타이완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대가 점점 개방되면서 그들 대부분이 진정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당에 의해 억지로 이끌려 부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국민당이 타이완에 들어오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전역군인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타이완은 그들을 영예 국민, 줄여서 “영민(榮民)”이라 불렀고 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다. 일부 “청년군”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역하고 나서 힘들게 공부하여 4~50세에 학위를 받기도 했다.

또한 많은 군인들 중에는 당국의 “상산하해(上山下海)”라는 개발정책에 따라 힘든 공사에 참여했다. 예를 들면 타이완 동서를 잇고 중앙 산맥을 통과하는 중형(中橫) 국도가 있는데 이는 “완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도로”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장비가 없어서 사람들이 직접 높은 산중턱에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전국을 떠돌던 전역군인들에게 이 도로건설은 마치 전쟁에 나간 것처럼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따랐다. 이곳에 있는 창춘사(長春祠)는 바로 이 공사로 인해 순직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 도로에서 가장 험준한 곳은 타이루거(太魯閣) 구간으로 전체가 대리석 협곡으로 되어있는 타이완의 유명한 절경 중 하나이다. 직접 이곳을 보면 당시 얼마나 힘든 공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민공정처(榮民工程處)”라는 국영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줄여서 “영공처”라고 했다. 처음에 이 회사는 군인들을 조직하여 중대하고 힘든 공사에 이들을 투입시켜 일을 시키고 보수를 주는 업무를 했다.

많은 사람들은 공사일이 끝나고 나서도 산에 남아 경제작물을 재배하였고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전역군인이 함께 농장을 만들었다. 타이완에서 매우 유명한 중형(中橫) 고산지대 채소와 값비싼 리산(梨山)배와 같은 식물의 재배기반은

바로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역 후나 공사일이 끝나고 나면 새벽 혹은 야밤에 길거리에서 군것질거리를 팔거나 청소부, 택시기사, 경비원 등과 같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갔다.

당시 그들이 참여했던 공사의 초기 목적은 사실 군사용도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완 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 것이었다. 따라서 타이완에 대한 이들의 공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이완 경제 발전에서 그들은 여전히 희생양일 뿐이었고 대부분이 처량한 노후를 보냈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1980년대 타이완의 많은 문학작품에서 외성 전역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는 모두 리스커 사건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몸은 비록 타이완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머나먼 자신들의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중국가족방문이 허락되긴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들의 영혼조차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리스커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은행 강도 사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아마 뉴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전역군인에 관한 화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1983

### “육의사(六義士)” 비행기 납치사건

1983년 5월, 중국의 한 민항기가 선양(沈陽)에서 상하이(上海)로 가는 중에 한국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여섯 명의 청년들은 한국에 도착하자 타이완으로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당시 반공 이데올로기의 기치 하에 국제 항공기납치반대조약 따라 그들을 “비행기 탈취범”으로 봐야했지만 당시 타이완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비행기를 탈취한 육의사”라고 불렀다. 그

비행기 납치범들은 한국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타이완 정부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들을 도와주었다.(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을 변호하게 하는 등)

한국에서 구류와 기소, 형 확정을 거치고 1년 3개월 동안 수감된 후 1984년 8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으로 떠들썩한 상황을 틈타 그들은 조용히 타이완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타이완에 도착한 다음 날 장경국이 이들을 접견하고 이들은 곧 “반공영웅”이 되었다. 당시 국민당은 그들에게 1700만 타이완 달러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취업과 취학도 도와주어 그들은 한동안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

하지만 이 일은 곧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져갔다. 시대가 변하면서 영웅이라는 후광도 없어진 것이다. 그 사건 이후에 발생한 비행기 탈취사건은 탈취범들과 비행기를 따로 구별하여 처리를 했는데 먼저 비행기를 돌려보내고 탈취범은 그 죄를 물어 몇 년 동안 타이완에서 수감되었다가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육의사”의 소식을 들은 것은 1992년이였다. “육의사”중 한 명인 쥐창런(卓長仁)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어들였는데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가 쫓딱 망하게 되자 그는 사람을 납치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10년이 지나서야 형이 집행되었다.

## 1984

### 초등학교 입학

1984년 3월, “잉차오(螢橋) 초등학교 학생 황산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불쌍한 학생의 이름이 “관성연”(官聲彦)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1학년에 들어가기 전 여름에 나는 또 할아버지 집에 갔다. 수신도 잘 안되던 낡은 TV에서 필리핀의 반대파 지도자인 베니그노 아키노가 귀국하여 공항에서 암살당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다. 무더운 여름, 선풍기가 달달거리며 바람을 내뿜는 다다미방에서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타이완이 이 일을 특



히 주시했던 이유는 당시 아키노가 타이완에서 중화항공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다가 충격을 당했는데 그가 쓰러져 있던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는다.

뜻밖에도 2년 후 마르코스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나는 또 다시 TV에서 베니그노 아키노의 부인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해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다. 사실 나와 같은 11월생들은 원래 다음 해 9월이 되어야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자녀들의 학업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은 “출발선에서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 방법으로 어머니는 먼저 친분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그 학교에 입학시켜 3일 동안 다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옆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킨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양밍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엄마가 3일 동안 매일 나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산에 올라가던 장면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웠다. 피아노를 배운 것은 정말이지 나에게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선생님이 너무나 엄격하셔서 내가 잘못 치기만 하면 연주를 다 마치기도 전에 작은 나무 막대기로 내 손등을 내리쳤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타이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 여러 가지를 배우도록 했는데 영어나 음악, 미술은 기본이고 암산, 주산, 공문(功文, 즉 구문), 수학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아이들을 그토록 학원에 보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예전에 배울 수 없었던 한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자녀가 출발선에서 뒤쳐지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인데 처음부터 전력질주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정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암전하게 시키는 대로 학교 안에 들어서서 장개석 동상을 보면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나서야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지나치고 나서 장개석 동상의 엉덩이를 보고 절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랬다가는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

학교에서도 국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민남어(閩南語)를 사용하는 학생이 발견되면 벌을 주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려고 고자질을 하는 나쁜 버릇이 생겨났다. 하지만 아이들의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선생님은 고자질을 들어도 크게 개의치 않으셨고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보통 초등학교의 반에는 간부들이 있는데 반장과 부반장 외에 다음과 같은 간부들이 있다.

규율부장: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을 잡는 것으로 선생님의 부하였다.

학술부장: 선생님을 대신해 공책을 걷는 일을 한다.

위생부장: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가 잘 되었는지 검사하는 간부로 청소구역을 나누기도 한다.

총무부장: 반 회비를 걷는 일을 한다.

.....

이 외에도 당번이 있었다. 하루 두 명이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고, 물통에 물을 길어오고, 선생님을 도와 차를 따르는 등의 잡일을 하는 것이었다.

매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이 교단에 오르면 학생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했고 선생님은 “여러분 안녕!” 하며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경례를 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은 모두 자상해서 아이들에게 관대했다.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하는 말은 곧 법과 같아서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하곤 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어린이들은 절대로 무단횡단 하지 말고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내가 좀 컸을 때 선생님이 무단횡단하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자 어리고 순진했던 내 마음에 정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매일 학교가 끝나기 전 마지막 수업시간을 마칠 때면 반장은 “일어서! 차렷! 경례!”라고 외치고 그럼 학생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아 잘 가! 내일 또 보자!”라는 인사를 했는데 장난기가 가득한 아이들은 “모두들 내일 사라져라!”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 타이완 맥도날드 1호점 개업, 하이산(海山) 탄광 폭발사건

타이완의 첫 번째 맥도날드는 1984년에 개장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개업식이 화려하게 치러졌고 그 결과 한 주 판매액이 140만 위안에 달하여 당시 세계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건강의 기쁨과 활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맥도날드는 점차 아이들의 마음속 성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맥도날드에 가자고 부모님께 졸라댔다. 그 결과 이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중남부에서 차를 대절하여 오는 특별한 관광지가 된 듯했다. 그리고 주부 연맹에서는 햄버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량식품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당시 맥도날드 1호점은 정말 인기가 대단했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다.

맥도날드의 체인점이 생겨날 때마다 그 지역 일대의 주택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물론 당시 타이완 토지가 모두 오르고 있었고 맥도날드의 입점지역 선택 역시 좋았기 때문에 윈윈 관계가 된 것이라는 관점도 있었다. 아무튼, 아주 짧은 시간동안 우리 집 부근의 길가에는 당시 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와 KFC, 웬디스가 연이어 개장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고 이로써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나는 무의식중에 자부심을 느끼며 “맥도날드 옆이야.”라고 대답하고는 했다.

초등학생들의 여가 활동은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 세 곳의 패스트푸드점 역시 초등학생의 점심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매일 정오가 되면 맥도날드 직원이 대량의 음식을 학교 전달실 입구에 가져왔는데 학생들은 언제나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당시 맥도날드의 가격은 확실히 비싼 편이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 마치 뭔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누리는 일이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어릴 때 맘껏 먹지 못했던 육구불만 때문인지 한동안 미친 듯이 배가 터지도록 맥도날드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댔다. 그렇게 많은 불량 식품을 먹어댔더니 정말 살이 많이 찼었다.

매번 그 길을 지날 때면 각각 자신들의 가게를 대표하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 크기의 인형이 세워져 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우와! 맥도날드 아저씨다!, KFC 할아버지야!, 웬디스 누나!”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맥도날드 아저씨의 모습은 한 손을 내밀어 환영을 하는 모습이다. KFC 할아버지는 모두가 알다시피 자상하게 웃으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웬디스 누나는 양손을 사람들에게 내밀어 포옹을 하는 모습이다.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맥도날드 아저씨가 KFC 할아버지를 마치 때리는 것처럼 한 손을 들고 있고 웬디스 누나가 중간에 서서 싸움을 부추기는 듯이 두 손을 내밀어 둘을 밀치는 모습이다. 정말 누가 했는지 참 대단하다.

몇 년 후, 웬디스는 대리점의 경영이 원활하지 못해 타이완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1992년에는 맥도날드 1호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폭탄을 제거하던 경찰 한 명이 사망하여 이는 그 해의 큰 이슈가 되었다.

1984년 말에 발생한 하이산 탄광사고 역시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 시기의 타이완 석탄산업은 가장 악재가 많았던 시기로 여러 차례의 천재지변이 발생했고 매년 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러한 하위층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무슨 관계가 있고 왜 뜨거운 화젯거리가 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저우쥬루(周宗魯)라는 노동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저우쥬루 역시 외성 전역군인으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그의 말에 따르면 전쟁 중에 두 번은 한 연대에서 그와 두세 명만이 정말 운이 좋게 살아남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외성 전역군인들처럼 전역 후 삶을 꾸려나갈 이렇다 할 능력이 없어 석탄을 캐는 일을 했다.

하이산이 폭발하면서 그는 광산 속에 갇혀 약 5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일한 생존자였다. 40도가 넘는 고온의 갱도에서 먹을 음식도 물도 없어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었다.

그는 하느님이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 몇 년 전,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그를 보았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가 당시 타이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오늘날까지도 타이완 석탄 산업의 역사를 논할 때면 항상 그가 언급된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이후부터 타이완의 석탄 산업도 점차 몰락하게 되었다.

“죽연방”(竹聯幫) 보스 천치리(陳啓禮)와 장난(江南) 사건

장경국은 취임한 이후 편한 차림으로 “민간”을 방문하고 “민간인 친구”를 사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 이렇게 “장태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지자 그의 가문에 대한 인상도 바뀌기 시작했다.

“민간친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장경국은 반드시 “궁정”에 있어 국민들과 어울려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그 당시, 신문지상에서는 “민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과거 봉건적인 사상의 여독이 여전히 자신들도 모르게 사람들의 사상에 박혀 있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바로 이것이 노예근성이다. 또한 정부는 이른바 “덕정”이라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시도하였는데 사실 그것 역시 원래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가?

어쨌든 장경국이 취임한 몇 년 동안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감정은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지만 그 해에 발생한 “장난(江南)사건”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장난의 본명은 리우이량(劉宜良)으로 타이완 신문사의 주미특파원인데 사실 그 역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간첩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 <장경국전(蔣經國傳)>을 써서 미국 신문에 게재했다. 이 전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장개석 가문 내부의 이야기와 국민당 내부의 권력 투쟁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로 인해 당시 정부는 그를 장개석 가문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왕시링(汪希苓) 정보 국장은 “죽연방(竹聯幫)”의 보스 천치리를 소개 받았다.

그리고 죽연방 조직원을 미국으로 보내 (국민당 안중의) ‘배신자’ 장난을 암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게다가 영리한 천치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하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타이완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 정보기구가 공공연히 자국에 킬러를 보내 이미 미국 국민이 된 장난을 암살한 것에 크게 분노했다. 장난이 원래 FBI의 간첩으로 이중간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사건 관계자들은 나중에 모두 뿔뿔이 도망갔고 천치리 역시 타이완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조직들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정부가 폭력조직과 그 같은 결탁을 하고 있었다니!

장경국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 그의 아들 장샤오우(蔣孝武)였다는 것이다. 후계자가 될 가망성이 가장 많았던 그는 비록 나중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타이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나중에 정부는 화제를 돌리고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그 해 말 “일청전안(一清專案)”이라는 타이완 역사상 가장 컸던 폭력조직 소탕작업을 전개하였는데 당시 많은 형님들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모두 체포되었다. 예전의 “뤄다오”(綠島)는 원래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곳으로 거의 이때부터 “형님들의 고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뤄다오 대학”이라고 불려졌다. 형님이 되려면 먼저 이곳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 나는 아주 어렸다. TV에서 항상 폭력조직을 소탕하는 광고가 나왔던 것이 기억나는데 유명 스타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땅에 있는 검은 종이조각들을 치우는 장면이었다.

몇 년 후, TV에서 당시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때 했던 행동들이 타이완을 위한 것이고 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고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의 타이완 사회 발전을 보면 왜 그들이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

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단지 그들이 충성하는 대상이 틀렸을 뿐이다.

그 때의 유행어가 있었다. “그는 ‘장난’되었다(제거되었다).”

1985

### 제10 신용합작사 사건

우리 집 전화번호는 정말 기억하기 쉬웠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귀찮게 하곤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이 일로 인해 우리 집과 “제10 신용합작사 사건”은 아주 작게나마 관련이 있었다.

“十信사건”은 타이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경제 범죄 사건으로 “十信”은 “타이베이 제10 신용합작사”를 말한다. 신용합작사는 외환 업무만 제외하고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제10 신용합작사는 오랫동안 귀타이(國泰)그룹의 차이완춘(蔡萬春) 일가가 관리해왔다. 1960년, 차이완춘은 토지에 투자할 대량의 자금이 필요해 이곳에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고자 “1위안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했다. 이로써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타이베이의 제10 신용합작사의 자산이 1억 위안을 돌파하게 되었고 당시 타이완에서 손꼽히는 신용합작사가 되었다.

과거 타이완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집에다 보관했다.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는 1950년대 말에 발생한 “8.7 수재”였는데 이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는 중부지역을 참혹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타이완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홍수피해로 꼽힌다. 이 수재로 인해 집에 돈을 보관했던 사람들은 막중한 손실을 입었고 그때부터 일반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게 되었다. 또한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은행과 비교하면 신용합작사는 가입절차가 간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겼다.

1980년 차이완춘의 아들 차이천저우(蔡辰州)는 “국회위원”으로 당선이 되어 대

량의 자금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 과정에 내막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정부는 제10 신용합작사의 부정대출과 현금 잔고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 차례 경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대출 총액이 총자산을 넘어서면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파산하게 되었다.

“제10 신용합작사 사건”으로 인해 타이완 투자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되었고 사기 금액이 백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수천 명의 고객들은 평생 동안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많은 관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은 이백여 명에 달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는 당시 국민당 비서실장이었던 장옌스(蔣彥士)도 연루되어 있었고 차이첸저우는 체포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10 신용합작사 사건”으로 인해 타이완 국민들은 국민당과 재정 금융부문에 오랫동안 얽혀있던 부패 관계를 알게 되었고 장경국은 이에 대해 매우 진노했다. 과거 당정이 나뉘어져있지 않던 시대에 장경국 밑으로 “총통부”, “중앙당부”, “국안회(國安會)”의 3명의 비서실장이 있었다. 원래 장경국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위임했었지만 “제10 신용합작사 사건”이후로 그는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그의 건강이 아주 나빠졌다.

사람들은 장경국이 “천원청 사건”과 “장난사건”으로 인해 정보기구의 부패와 탈법적 행동을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제10 신용합작사 사건”으로 인해 국민당 권력의 핵심과 주요 인사들의 부패진상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경국은 당의 기풍을 바로잡고 체제를 혁신해야한다고 결정하여 옌자간(嚴家淦)이 이끄는 12명의 인원을 조직하여 정치 혁신문제를 연구하도록 했다. 이 12명은 “제10 신용합작사 사건”과 거의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장경국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리덩훤과 다른 인사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였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리덩훤이 12인 회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접 리덩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옌자간이 중풍에 걸리면서 리덩훤은 저절로 그의 후임자가 되었다.



리덩휘는 이렇게 해서 당내 지위가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 집 전화는 당시 “제10 신용합작사 사건”과 관련된 중요 인사로부터 산 것이었는데 그가 그 사건이후 암살당하면서 매년 그가 암살당한 날이 되면 항상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고서야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

“계엄령 해제”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었고 모든 것들은 이미 새로운 출발과 박차고 나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외 인사들도 점점 조직적이 되었다. 비록 미려도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이미 이 파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장경국은 자신의 가문이 더 이상 자리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과 미래에 국민당 정권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국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반을 닦을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당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타이완 출신 인재들과 국민당 젊은 3세대를 발탁하여 본토화로 반대세력들과 맞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당이든 아니든 젊은 정치인들이 모두 그 몇 해에 두각을 나타냈다.

1981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천슈이벤과 시에창팅은 “미려도 사건” 변호를 맡은 후 동일 선거구에서 동시에 타이베이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 그 후 십여 년이 지나, 시의원에서 “국회위원”까지 그 둘은 계속 타이완의 정치 일번지로 불리우던 타이베이시 제1 선거구에서 경선을 하였고 매번 두 사람은 높은 표로 당선되었다. 어쩌면 제1 선거구가 그 두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이 바로 제1 선거구에 있었는데 후보자들은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과 광장에서 자주 연설을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두 사람이 십여 년 동안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 참 이상한 것은 국민당 후보자들은 연설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부분 당외 후보자들이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언제나 국민당보다 시끌벅적했다. 아마 국민당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선이 확

실하다는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항상 저녁을 먹고나면 온 가족이 다함께 연설을 들으러 가서 민주 소시지를 먹고 책과는 노점을 구경했다. 어른들은 앞에서 연설을 듣고 아이들은 뒤에서 놀았는데 이는 정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식사를 하고나서 여흥을 즐기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천수이벤은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 후의 정치생활이 순탄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85년, 그는 시의원을 사퇴하고 고향인 타이난으로 돌아가 당외 인사를 대표하여 타이난현 현장 선거에 출마하였지만 낙선되었고 그의 부인 우슈전(吳淑珍)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사고가 누군가 일부러 낸 것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천수이벤은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사게 되었다.

1986년, 천수이벤이 사장을 맡고 있던 <봉래도(蓬萊島)> 잡지사가 국민당 “입법위원” 평후상(馮滬祥)의 논문이 다른 사람의 저작을 표절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가 1년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봉래도 사건”이었다. 이는 분명히 정치 압력이 개입된 것처럼 보인다. 같은 해, 우슈전은 남편을 대신하여 출마하여 “국회위원”에 당선이 되었고 출옥한 후에 천수이벤은 그녀의 보좌관이 되었다. 사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천수이벤이 지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를 “그림자 국회위원”이라고 불렀다.

시에창팅의 정치 여정은 천수이벤과 비슷했다. 그 당시에 그는 타이베이시 시의원이었다. 천수이벤의 대담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는 법안이나 미해결 사건들을 천천히, 아주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성격으로 아주 꼼꼼한 이미지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수이벤은 단칼에 목숨을 앗아가는 관도<sup>17)</sup>라고 묘사했고 반면 시에창팅은 천천히 적을 해부하는 사시미칼이라고 묘사를 했다.

그들은 같은 나이, 같은 시기, 같은 선거구 출신으로 절대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희생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그 당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국민당의 새로운 인물들은 대부분 “정부체제”하의 관료 승진방식에 따라 정부 부서에서 직무를 맡다가 다시 당 내에서 직무를 맡는

---

17) 관도: 삼국지의 관우가 쓰는 큰 칼

것이었는데 대부분 정치업무와 당직을 동시에 맡았다.

예를 들면 마잉주(馬英九)는 유학을 마치고 타이완으로 돌아오자 청렴결백하고 “충당애국”의 집안출신이었기 때문에 장경국의 영어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통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마잉주는 아주 젊고 멋있었다. 매번 장경국이 외국 손님을 만날 때마다 마잉주가 가운데 앉아 통역하는 모습이 뉴스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당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를 주목했는지 모른다. 그때 마잉주 역시 국민당 내의 제3 부비서장을 맡았다. 국민당에 여러 개의 부비서장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업무를 맡았고 마잉주가 맡은 제3 부비서장은 전문적으로 중국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그리고 그는 관료 계열에 들어가는 갑종 특별시험에 통과하여 정식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쑹추위의 경력도 비슷한데 마잉주보다 좀 더 일찍 정치에 입문했다. 1970년대 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장경국은 “행정원장”을 맡고 있었다. 쑹추위 역시 추천을 통해 장경국의 영어 비서를 맡았고 이후 점점 직위가 올라 정치계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나중에 신문국 국장을 역임하였고 특히 타이완 정부와 미국과 단교하였을 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을 선포하던 그의 “위엄 있는” 포스는 하룻밤 사이에 많은 여성 팬들을 끌어 모았다. 1984년, 그가 국민당 중앙위원회 부비서장이 되면서 당시 마잉주의 상사가 된 셈이었다.

그들 둘은 이십여 년 전에 정말 인물이 좋았고 당에서의 미래도 밝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들이 탄탄대로의 길을 갈 것이라 생각했다.

롄잔(連戰)의 경력 역시 앞에서 언급한 두 사람과 비슷한데 당시 그는 나서지 않아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단지 국민당 내에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였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자면 나는 현재의 모든 정치 인물들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20여 년 동안 당의 세력들이, 그리고 당과 당 사이가 나뉘었다가 합쳐지고, 원수였다가 때로는 친구가 되는 것이 정말이지 <삼국연의(三國演義)>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무기가 검에서 말과 책략으로 바뀌었고 그 공략 대상이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관심이 있는 자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길 바란다. 내가 말한 것들은 단지 내가 보았던 한 측면일 뿐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다.

## 초등학교 교재의 “장개석 이야기”

197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80년대 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는 초급, 중급, 고급 세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2개 학년으로 되어있었다. 1, 2학년 때는 5, 6학년이 굉장히 어른처럼 느껴져 마음속에 존경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지금 보면 1학년이나 6학년이나 모두 어리기만한 장난꾸러기 아이였다.

전통적인 정부식 표현에 따르면 타이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지덕체군미”(德智體群美)의 5개 분야를 균등하게 중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수업과정은 한 학년을 상, 하 두 학기로 나누어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생활윤리의 주요 과목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서예, 주산 등의 수업으로 받도록 했다. 그리고 “보밀방첩”(保密防諜)이라는 그 시대에만 있던 교재도 있었다.

나는 중국 친구들이 비교적 흥미로워 하는 것이 그 시대 타이완 어린이들의 정치 사회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우리들에게 교재를 통해 주입시켜 왔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관념들이 국어, 사회, 생활윤리, 보밀방첩 수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어교재에는 모든 과마다 짧은 글이 실려 있고 그 아래에 새 단어들 이 나와 있었다. 아마 그 시대 친구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바로 장개석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본 이야기였을 것이다.

장개석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날마다 마당을 청소하고 어머니를 도와 밭에 야채를 심었다. 어머니가 천을 짜면 그는 옆에서 공부를 했다.

어느 날, 그가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많은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휩쓸려 내려왔지만 물고기들은 다시 힘을 내어 강을 거슬러 헤엄쳤다.

장개석은 보고 생각했다. “작은 물고기들도 이렇게 큰 용기가 있는데 사람이 된 자로서 물고기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장개석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많았기 때문에 커서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제12과)

보통 아이들은 물고기를 보면 잡아서 가지고 놀거나 먹는 생각을 할 것이다. 당시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했다. 이야기가 절정부분에 달하면 감성이 풍부했던 몇몇 여자아이들은 이미 와르르 눈물을 쏟곤 했다.

이는 아주 전형적인 장개석의 관한 이야기로 정치교육은 동요에서도 나타났다. 예전에 모두가 부를 줄 알았던 <형과 아버지는 정말 위대해(哥哥爸爸真偉大)>라는 동요가 있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형과 아버지는 정말 위대해, 명예가 우리 집을 비추네. (哥哥爸爸真偉大, 名譽照我家)

나라를 위해 싸우고 군인이 되어 크게 웃는다. (爲國去打仗, 當兵笑哈哈)

가세요, 가세요, 형, 아버지,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走吧走吧哥哥爸爸, 家事不用你牽挂)

내가 크기만 하면, 내가 크기만 하면, (只要我長大, 只要我長大)

나중이야 이 동요 후반에 세 단락이 더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한 단락 한 단락 더욱 격양되고 심지어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가장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다.

혁명군인은 정말 위대해, 널리 이름을 알리네. (革命軍人真偉大, 四海把名夸)

목숨 다해 적을 무찌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자. (拼命去殺敵, 犧牲爲國家)

죽이자, 죽이자, 혁명군아, 나도 악당을 물리쳐야지. (殺吧殺吧革命軍呀, 我也要  
把奸匪殺)

내가 크기만 하면, 내가 크기만 하면, (只要我長大, 只要我長大)

정말 동요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시 교육자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는지 마지막 단

락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

항일가곡의 가사 역시 교과서에 들어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깃발이 휘날린다(旗正飄飄)>라는 곡이었다. 그 곡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외워서 쓰도록 했던 본문 중의 하나로 나는 지금까지도 외울 수 있다. “깃발이 휘날린다. 말이 운다. 총은 어깨에, 칼은 허리에, 뜨거운 피가 성난 파도처럼.....(旗正飄飄, 馬正蕭蕭, 槍在肩, 刀在腰, 熱血似狂潮.....)”

내가 5, 6학년이 되었을 때 시대가 바뀌어 이 과목들도 없어지기 시작했다.

생활윤리수업은 출판요강에 따랐는데 아이들에게 사람됨과 행동에 대한 도리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당시 교과서에는 장개석이 어떻게 타이완에서 중화문화를 부흥시켰는지를 항상 강조했고 중화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사람됨을 배우도록 했다. 왜냐하면 장개석이 중화문화 부흥의 사명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백년마다 성인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장개석이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文), 무(武), 주공(周公), 공자(孔子), 맹자(孟子)---주희(朱熹)---손문(孫文)으로 이어지는 중화문화 오천년의 유교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른다. 어떤 선생님은 흥분한 나머지 장경국도 그들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리고 보방(保防)교육이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재가 하나 있었는데 안에는 미인들의 유혹과 음식의 유혹, 돈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기밀과 정보를 털어 놓는 등의 이야기들이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냥 매번 보밀방첩의 웅변대회에서 마지막에 “간첩을 조심합시다(음을 길게 늘인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여기를 강조한다).”라고 외치고 다시 한 번 반복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사회 수업은 주로 간단한 사회 조직과 사회 관념을 소개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고학년이 되면 간단한 역사와 지리 수업과 타이완의 발전, 사회현황을 소개한 수업을 했다. 그런데 수업에서의 타이완 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미화시켜서 아주 발전했다는 내용들 뿐이었다.

### 초등학생 시절의 어느 날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침 7시 반까지 학교에 가야했는데 그런데 학교와 집이 너무 가깝다보니 게을러져서 거의 매일 지각을 했다. 지각하면 학교 정문에서 선도부가 학년과 이름을 적어 선생님에게 보고했고 벌을 서다가 단체로 교실로 들어가게 했다.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아침자습을 하고 끝나면 청소를 분담하는데 각 다른 구역을 맡아 청소를 했다. 학교 주변 청소를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나간 김에 군것질거리를 사먹었다.

아침에는 교내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이 직접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녹음을 했다. 가끔 “타이베이 시장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시장”역할도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많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과 대답을 했다.

8시쯤이 되면 국기계양식을 한다. 3, 4학년 때는 거의 매일 운동장에 나가 국기를 올려야 했지만 5, 6학년이 되면 매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각 반은 교실 앞 복도에 줄을 맞춰 서 있다가 음악이 울리면 한 반 한 반씩 천천히 내려가 운동장으로 나갔다. 당시 타이완 초등학교는 내가 살던 곳의 초등학교로 말하면 한 반에 거의 50여 명 정도이고 한 학년에 약 열두세 개의 반이 있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중국의 초등학교와 비교해 훨씬 컸고 거의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각 반이 모두 제 위치로 가면 구령대의 사회자는 대열 정리 구령을 외치고 정리가 되면 국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때,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4명의 친구들이 각각 깃발의 꼬트머리를 잡고 운동장에 들어와 계양대로 향했다. 깃발을 올리기 전에 먼저 노래를 불렀고 다 부르고 나서야 음악소리에 맞춰 깃발이 천천히 올라갔다.

깃발이 다 올라가면 교장선생님과 주임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연설을 했는데 아

이들은 잘 듣지도 않고 몰래 수다를 떨기 일쑤였다. 조회가 끝나고 나면 다함께 “국민 건강 체조”를 했고 구령대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대표로 체조를 했다. 한 번 씩 대표로 뽑혀 나가 체조를 하면 정말 창피했다. 매주 하루는 주회(周會)가 있어서 외부 강사와 공연 단체를 학교로 초청했다. 주회는 비교적 절차를 따져서 먼저 “손문의 유언(國父遺囑)”을 읽고 허리를 숙여 세 번 경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주회가 있는 날이면 수업을 하지 않고 운동장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기에 강단에서는 침을 튀기면서 연설을 했지만 아래에서는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초등학교의 수업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고 그 밖에도 체육과 미술, 음악 등의 수업이 있었다. 타이완의 초등학생들이 체육시간에 가장 좋아하던 놀이는 바로 피구였다. 놀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선 밖에 있는 사람이 공으로 선 안의 사람을 맞추면 맞은 사람은 선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 수는 많아지고 안에 있는 사람 수는 적어져 상대편을 점점 쉽게 맞출 수 있다. 나중에 피구를 주제로 한 일본 만화 <피구왕 통키>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피구를 할 때마다 무슨무슨 슛(불꽃슛, 회오리바람슛, 번개슛.....)이라고 외치며 공을 던졌다. 공에다가 불꽃 모양을 그리기도 했고 만화에서 나오는 화려한 투구 동작을(실제로 그 동작은 역학적으로는 힘이 들어갈 수 없는 동작이다) 배워 와서 따라하다가 바보같이 자기 팀을 맞추기도 했다. 피구 외에 체육 시간에 배웠던 특이했던 것으로 공죽(空竹)<sup>18)</sup>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돌릴 줄밖에 몰랐다. 그래서 매번 다른 아이들이 화려한 동작을 할 때 마다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다. 동작마다 재미 오르기와 에펠탑 등과 같은 이름이 있었고 누가 높이 던지는지 시합을 하기도 했다. 한번은 높이던지기를 시도하다가 공죽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기도 했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는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술 수업은 미술실에서 했다. 간단한 소묘와 수채화, 종이공예, 조각 등을 배웠는데 대부분 놀면서 하는 것이었다. 음악수업은 저학년일 때에는 선생님이 오르간을 교실로 옮겨와 오르간을 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당시 음악 수업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었다. 중급 학년이 되면 음악교실이

18) 공죽(空竹): ‘扯鈴’이라고도 불림. 대나무로 만든 작은 놀이기구, 둥근 원관의 중심에 축을 만들어 그 사이에 줄을 넣고 두 손으로 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공죽몸체를 회전시키는 놀이



있었다. 타이완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피리를 가르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 시간 동안 피리를 불고 나면 침이 피리 입구에서 흘러나왔는데 장난기가 심한 아이들은 피리 속의 침을 아이들에게 뿌려댔다. 그리고 음악 수업 시간에 반드시 배워야 할 노래로 “장개석 기념가”와 “손문 기념가”였다. 어떤 책을 배우든 앞에는 항상 이 노래가 있었다.

수업 시간에 만약 담임선생님의 수업이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은 대부분 교무실 안에서 학생의 숙제를 보거나 가정통신문을 쓰셨다. 가정통신문은 바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연락할 수 있는 도구였는데 매일 통신문이 발송되면 선생님이 오늘 내가 학교에서 저질렀던 나쁜 행동들을 쓰지나 않았는지 항상 안절부절하며 열어보았다. 만약 좋은 일이 아닐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서 별별 떨면서 엄마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정말이지 둘이서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았다.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는데 각 반마다 밥을 데울 수 있는 설비가 있었다. 아침에 데워서 낮에는 뜨거운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업자들도 초등학교 시장을 뚫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 정오에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아저씨”가 학교 입구에 나타나면 언제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학생들은 모든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 외에도 외부에서 배달해오는 많은 도시락이 있었는데 예약주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와 데워 먹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데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밥을 남겼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서너 명의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셨다.

오후 수업이 끝나면 3시에 청소를 했고 4시에는 학교가 모두 끝난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교 부대”끼리 갔는데 같이 다녀야 안전했기 때문에 집이 가까운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가는 것이었다. 고학년 아이들은 각 반마다 돌아가며 교통대를 맡아 교통안전 지휘를 책임졌다. 노란색 안전모와 야광 조끼를 입고 “교통대”라는 견장을 달아 아침에 등교할 때,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학교 옆의 횡단보도에서 기다란 교통봉을 들고 신호등에 따라 차가 지나가는 것을 막았다. 참 이상하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지각하던 내가 이 교통대에 참가하고 나서

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전자 오락기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당시 “열쇠아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에 아직 돌아오지 않아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며 집에 가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5학년이 되면 동아리활동도 하게 된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단순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서부나 수공예부, 환경보호부 등 비교적 일반적인 동아리다. 타이완에는 중국인들에게는 낯선 “보이스카웃”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국제적인 조직으로 군대처럼 각종 계급과 기능, 그리고 전용 제복도 있다. 이 단체는 지금은 비교적 봉사적인 성격의 조직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 일부 학생들은 보이스카웃에 참가했는데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은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처럼 그것이 부잣집 아이들의 놀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사실 보이스카웃의 장비들은 정말 가정환경이 비교적 좋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타이완의 초등학교에서 “자치시 시장선거”라는 일종의 특별한 활동이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초등학교가 바로 자치시로 한 명의 학생시장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는 3학년 이상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일반 경선처럼 후보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했다. “학교에 활동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연설을 몇 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결국 이 공약은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경선기간에는 후보자를 내보낸 각 반에서 포스터를 만들어 다른 반에 가서 선전을 했다. 용감한 아이들은 직접 “적의 진영”에 들어갔다. 그럴때면 선생님께서 나서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다. 물론 “어른들의 세계”처럼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친구들에게 사탕을 돌리거나 콜라를 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비교적 단순했다. 비록 당선된 “자치시장”은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지만 이런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투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1986

## 사회 운동의 계몽

1986년에는 타이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미국의 오렌지색 우주선 “챌린저호”였다. 현장 기자의 흥분된 보도 가운데 발사되었는데 1분 후 폭발해 버린 것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일로 장래에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2월에는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이로써 오랫동안 필리핀을 고압적으로 통치해오던 마르크스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다. 이 일은 국민당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고, 당외에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정치사건 외에 1986년에는 두 번의 시민운동이 있었다. 이 사건은 타이완 소수민족의 응집력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국민들의 사상적 관념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바로 반(反)듀폰운동과 탕잉선(湯英伸) 사건이다.

타이완 역사상, 수백 년 전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사람들 외에 원래 타이완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이 있었다. 과거 아주 오랜 시간동안 그들은 “산지동포(山地同胞)”라고 불렸는데 줄여서 “산포(山胞)”라고 불렸다.

오랫동안 정부가 그들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산포”들이 타이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어 비교적 특수한 집단에 속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고 이로 인해 어린 나이에 사회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교육수준이 낮다 보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사장 잡부나, 운송업, 어업 등과 같은 힘든 일 뿐이었고 여자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을 하거나 매춘부로 전락했다. 나중에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도 사회운동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탕잉선 사건은 바로 이 배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탕잉선은 원래 사범학교 학생으로 학교 교관의 불합리한 대우로 퇴학당해 타이베이로 와서 일을 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일을 구하고 9일 만에 고용주 일가족을 살해했다. 그리고 자수

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건 정황이 밝혀지자 사회 여론에서는 점점 그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정황은 그랬다. 그는 타이베이로 온 후, 한 소개소에서 세탁소 일을 소개받았는데 세탁소 주인은 고액의 소개비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그의 신분증을 강제로 빼앗았다. 탕잉선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강제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다. 그는 얼마 견디지 못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사장 부인이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탕잉선의 신분증을 꺼내들며 네가 빚을 지고 아직 갚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려고 하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와중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약간의 술기운이 화근이 되어 탕잉선은 결국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

탕잉선이 겪은 일은 당시 “산포”들이 일을 구할 때 자주 발생하던 일이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무시했다. 그래서 탕잉선 사건은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이었다. 이렇게 전과가 없고 학교에 다닐 때도 평판이 좋았던 청년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구원운동도 하기 시작했다. 당외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계, 종교계에서도 운동을 했다. 탕잉선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민족을 대하는 사회의 무시와 차별, 그리고 직간접적인 이유 없는 배척, 또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중에 결국 탕잉선은 사형되었지만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했는지, 그들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존중했는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 일어난 “반듀폰”은 환경보호 운동에 의해 발생했다. 모든 개도국은 환경문제와 경제발전 정책이 서로 부딪히는 시기를 겪었을 것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해야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경제 발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느 정도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반면 환경보호자들은 환경이 한번 파괴되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큰돈을 들여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문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문제였기 때문

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타이완의 첫 번째 대규모 환경보호 운동이 바로 “반듀폰”사건이다. 모두가 알듯이 듀폰사는 국제적인 화학공업 회사로 당시 그들은 루강(鹿港) 근처의 공업단지에 화학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생산품이 고오염성의 화학품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나중에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계엄시기였던 당시 상황 아래서도 항의자들이 당국에 강력하게 투쟁하며 각종 수단을 써서 듀폰사의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타이완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나중에 듀폰사는 루강 공장 설립계획을 취소하였고 이 역시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 투쟁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계획이 중지된 사건이었다. 앞에서 말한 환경보호 문제와 경제발전이 대립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듀폰사가 투자를 중지하면서 끼친 영향이 타이완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뭐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타이완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나타낸 것이었고 타이완 사회운동 역사상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운동, 학생운동, 언론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1987년, 정부는 환경보호처를 만들었다.

#### 국민들을 놀라게 한 “민진당 창당”

민진당이 창당되기 전 각종 체제 내외의 당외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국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의 활동이었다. 한편으로는 장경국이 일부러 당외 인사들의 행동을 이용하여 국민당내의 보수파를 억누르려 한다는 말도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시 주까오정(朱高正)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가 “입법원”에서 의장석으로 뛰쳐나와 마이크를 뺏아들어 난동을 부려 의회를 엉망으로 만든 일이었다. 당시 정말 모두를 경악케 한 사건이었는데 그는 매번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장경국은 정치개방에 있어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국회”의 보수 세력들의 파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까오정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반개혁파들에 대응하려 했던 것이다.

그 해 9월 28일, 각 당외 조직은 당외 후원회라는 명목으로 위엔산(圓山)호텔에

서 회의를 열고 민주진보당의 창당을 선포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민진당 내에 미려도파, 신조류파, 정의연대 등 많은 파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호전(水滸傳)>에서 영웅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이끌고 양산을 오른 것처럼 민진당이 창당되었던 초기에 국민당에 대항하기 위해 각 당의 단체조직들이 단합을 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당 설립 금지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법률상당을 조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민진당의 창당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고도의 정치적 긴장감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이를 진압할 것인지 이를 계기로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했다. 민주진보당이 창당되자 정부에서는 “반동분자”명단을 올렸는데 장경국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를 묵인했다. 나중에 장경국은 “신해혁명 기념일”에 “인민단체 조직법”과 “선거과면법”, “국가 안전법”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로써 타이완 민주 “헌정”의 문을 개방했다. 국민당 인사들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당이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며 항의를 했지만 장경국은 “세상에 영원한 집권당은 없다.”고 대답했다.

당시 나는 가족들과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다가 이 뉴스를 보게 되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저씨는 국수 먹는 것도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주인아저씨는 생각에 잠겨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라는 말만 하며 국수 만드는 것도 잊으셨다. 하지만 금새 기분이 좋아져서는 하루 종일 “나가자! 국민당을 부수자!”라며 외쳐댔다. 그럴 때면 아주머니께서는 아저씨를 한 번 찌려보고는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데 아저씨는 더욱 흥분해서는 “나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부수자!”라고 외쳤다. 정말이지 남자들은 중년이 되면 입만 살아있는 것 같다. 당시 민간에서는 정말 그랬다. 민진당을 정말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당이 싫었기 때문에 민진당이 창당되자 마치 자기 숨통을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나 보다.

민진당이 막 창당되었던 몇 년 동안에는 민진당을 언급할 때 신문에서는 민X당이나, X진당이라고 기사가 실렸는데 마치 이상한 당처럼 보여졌다. 사실 그 당시 민진당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시위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국민당과

항쟁을 벌였는데 그래서 모두들 민진당을 “시위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국민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진당도 이런 수단을 통해서만 모두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입법위원”과 “국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서 민진당은 20%의 표를 얻었다. 민진당의 창당은 반대 인사들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의 반대 인사들도 이로 인해 귀향의 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1987

“대륙수복”의 희망이 사라지다

1987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해로 타이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생각해 본적도 없는 일들이 87년에 모두 발생했다. 그 해에 타이완 외환 보유액이 최고에 달하여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당시 나는 10살밖에 되지 않아 기본적인 정치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어른들의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잇달아 발생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이전 사건에 대해 반응을 채 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였다. 국민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미 그에 익숙한 사고방식이 형성되었던 타이완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사건들이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동안 타이완은 “자유의 등대”, “대륙수복의 보루”가 되어 있었고 장개석의 지도 아래 모든 군민들은 “대륙수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 타이완은 이러한 신념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겼고 이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대륙수복”이라는 표어는 거의 모든 거리에 붙여져 있었고 편지봉투, 담배, 쌀자루, 성냥갑 등과 같은 물건에서도 모두 볼 수 있었다.

장개석이 제기했던 계획은 “1년 동안 준비하여 2년에 대륙수복을 실시하고 3년

에 모든 것을 소탕하며 5년에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 타이완출신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흥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곧 돌아갈 수 있으며 타이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어 왔다. 하지만 뜻밖에 수십 년이 흘러버린 것이다.

수십 년이 흘렀고 정치 환경은 바로 현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대륙수복”이라는 구호는 점점 시들해졌고 이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에 담지 않았다.

제일 불쌍한 것은 처음부터 중국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통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타이완을 그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신분에 기대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신분과 지위로 인해 일정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륙수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감히 의심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통치 계층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신념을 이용해 그들의 통치 정당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처량한 것은 하급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하급 군인과 사관이었는데 그 구성이 매우 복잡했다. 많은 사람들이 반평생을 전쟁에 바쳤고 심지어는 강제로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당국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륙수복에 성공하면 일부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사수전증”을 발급했다.

이처럼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신주패” 처럼 “대륙수복”이라는 신념을 믿고 살아갔는데 그 해에 정부에서 “대륙수복의 불가능”을 인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 신화는 이미 깨져버렸고 정부가 이 말을 했을 때 미래의 많은 일들을 위해 큰 문을 개방한 것과는 같았기 때문이다.

#### 중국가족방문의 개방

1980년대 후반, 사회는 점점 개방되었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성 전역군인문



제가 수면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또한 오랫동안 계속 되어왔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력한 힘으로 응집되어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하였고 이로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87년 말,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방문한 전역군인들에 관한 뉴스는 모든 뉴스 매체의 일면을 차지하였다. 뉴스에서는 “나이가 든 외성인”들이 적십자회 사무실로 몰려들어 가족방문을 신청하는 모습과 5~60세의 노인들이 가족방문 설명회에서 각성의 방언을 써가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수십 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나 끌어안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나는 비록 그들과 다른 시대의, 다른 배경의 사람이었지만 그 장면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장개석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타이완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타이완은 그렇게 일찍 공산당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 그들이 타이완을 보호하러 왔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타이완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장개석이 무기력하게 중국에서 쫓겨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타이완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당과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중하급 계층의 사람들은 가장 큰 희생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당시 자원을 한 사람이든 강제로 군에 들어온 사람이든 그들은 모두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청년 시절 타이완에 들어왔던 그들은 이미 5~60세가 되었다.

어렸을 때, 매일 오후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가 만든 빵과 만두를 팔던 외성 전역군인이 있었다. 가족방문이 개방된 초기에 그는 아주 들떠있어서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그는 우리 집 밑에 도착해 목청껏 외쳤고 그럼 사람들은 그가 온 것을 알았다. 십분 정도 머물다가 그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음식을 팔았다. 그의 늙은 모습을 생각하면 그가 젊었을 때 전쟁에서 어떻게 싸움을 했었을지 상상이 안 간다. 당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울컥하며 더 열심히 팔고 몇 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갈 거라고 했다.

중국가족방문의 개방은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원하던 소망을 이루

게 했다. 하지만 거의 40년이라는 세월동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전하고는 달랐다. 또한 그로 인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 가장 혼했던 문제는 일부 전역군인들이 고향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타이완에 온 후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자 타이완에서 결혼을 한 것이었다. 타이완의 부인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통신이 개방되고 가족방문이 개방되자 갑자기 “둘째 부인”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었고 그 동안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지만 남편이 점점 “본처”에게 향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인들도 있었다. 사실 남편들도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젊어서 만나 결혼한 부인이 나중에 돌아가 보니 다시 결혼을 하지도 않고 줄곧 자신을 기다렸는데 마음의 빛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타이완 본성인은 외성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타이완 여자들이 외성인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그야말로 온 집안이 발각 뒤집히는 일이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결혼하여 수십 년을 고생하며 살다가 갑자기 본처에서 둘째 부인으로 밀려났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는가. 가족방문이 개방되고 가장 뜨거웠던 화제는 도대체 이 문제를 “이중결혼”으로 봐야하는 가였는데 나중에는 법류상 “타이완 부인”의 합법적인 지위가 인정되었다.

고향을 떠나 온 수많은 전역군인들은 분명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시대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어느 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천륜의 시절을 잃고 싶겠는가? “어려서 고향을 떠나 늙어서 돌아가게 된”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느낀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분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시절로 되돌릴 수 없었고 생각도 많이 달라져 버렸다. 많은 전역군인들이 “타이완에서 그들은 우리를 외성인이라고 불렀고 고향에서는 우리를 타이완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한 것처럼 시대상황 때문에 이들은 두 사회에서 모두 외면당했고 모든 것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제향군인병원은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이 정거장에서 서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 왜냐하면 찌렁찌렁한 목소리의 할아버지들이 거칠고 우악스럽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좀 더 자란 뒤에 상황을 조금 알게 되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은 “중국가족방문”이라는 말은 거의 언급되지 않

아서 만약 제향군인병원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이완에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권위적인 정부와 맞서 싸운 이런 노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했을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화제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생활에서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개방 초기의 사회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가족방문도 친척이 점차 사라지면서 시들시들해졌다. 그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이완에 남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꿈속에서 만큼은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의 중학교 동창의 아버지는 상하이 분이셨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 나는 상하이말로 “아버지, 오랜만이네요.....”라고 장난을 치며 인사를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친구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고향 말을 들으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격에 찬잔도 떨어뜨리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 계엄령 해제

1987년, 타이완에서 38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이는 타이완에 매우 큰 영향 끼쳤다.

비록 계엄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비총부가 있다”라는 말처럼 언제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이 연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계엄시기, 사회는 평화로운 듯 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계엄령의 해제는 마치 압력솥 뚜껑이 열린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논쟁하고 모든 학문이나 예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택시기사, 농민, 노동자, 노병, 소수민족에서부터 목사, 작가, 교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어떤 계층에 있든지 막론하고 당시 각종 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힘이 갑자기 끊기 시작했고 각종 반대운동과 사회운동이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분출구가 생긴 것이었다. 민주에서부터 노동, 환경, 인권, 여성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제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솟구치게 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마

치 혁명에 도취된 것처럼 걱정적인 모습으로 걸어갔다. 그때는 경찰과 항의자들이 대립하고 곤봉과 돌맹이가 정신없이 날아다니며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위하던 시대였다.

이전의 질서는 이미 무너졌지만 새로운 관념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TV를 켜면 모두 혼란스러운 장면들뿐이었고 오래전부터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회질서가 없어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비록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전자매체는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많은 요구사항들은 무시되어 모든 시위자들을 폭도로 여겼다. 하지만 당시 아주 유행했던 “지하매체”가 있었는데 자칭 “녹색그룹”이라고 부르는 조직에서 찍은 것으로 선거 유세장에서만 살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였다. 이 조직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러 곳의 항의 장소를 찾아다녔고 그 곳에 가면 언제나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취재한 내용은 정부가 지배하던 일반 언론에서 보도하던 사실과 달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항의의 일선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이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카메라가 흔들리는가 하면 카메라가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항의자 편에 서서 끊임없이 달리기도 했다가 도망을 가기도 했다. 시각적인 생동감과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지금까지도 다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당시 “녹색그룹”에서 찍은 것을 즐겨 보았는데 그때 보았던 것은 단지 영상의 자극에 불과했다.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그들이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은 아버지가 보관하던 것을 몰래 가지고 나와 본 것으로 아주 흥미진진했다. “녹색그룹”은 타이완 사회운동 역사상, 그리고 다큐멘터리 발전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카메라를 들고 다른 관점을 제기했던 조직이었다.

1988

장경국의 별세

1988년 초, 신문발행금지와 두발금지라는 두 개의 금지령이 또다시 해제되었다. 해제되기 이전 매일 발행되던 타이완의 신문 지면은 겨우 “3장”이었는데 접어서 반으로 접으면 6페이지였다. 첫 장은 정치 뉴스로 대부분이 정책 홍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정부에서 발표한 뉴스였다. 두 번째 장은 민생사회 뉴스이고 세 번째 장은 오락과 문화에 관련된 뉴스였다. 신문의 항상 네모반듯한 모양에 문장은 아주 간결했다. 또한 글자는 많고 사진은 적었는데 당시 모든 신문이 그랬다.

아이들이 즐겨 보던 것은 <국어일보>였는데 이는 어린이 독자와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신문으로 글자 옆에 주음부호가 있었고 연재된 만화를 볼 수도 있어 모든 학급에서 구독했다.

1월 1일 신문발행금지가 해제된 이후 신문의 편성은 아주 다양해졌고 새로운 신문사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각종 입장을 대변하는 말도 생겼다.

두발금지라는 것은 과거 타이완의 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일정한 용모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남학생들은 3mm이고, 여학생들은 귀 밑 1cm로 속칭 “수박 껍데기”머리라고 불렀다. 두발금지가 해제된 이후 이 규정은 학교의 재량으로 하게 되었다. 사실 이는 실제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두발자유화였다. 왜냐하면 그후 몇 년 동안에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에게 두발 규정을 지키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규정은 학교와 학생들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긴 했지만 남학생들은 귀를 덮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뒷목이 보여야 했고 여학생들은 옷깃을 넘어서는 안 되었다. 물론 파마나 다른 것은 일체 허락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개방되기 시작했다. 두발 금지가 없어지고 완전히 해제 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중고생들은 파마를 하든지 염색을 하든지 얼마든지 기르고 싶은 데로 기르며 자기가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할 수 있다.

두발금지가 해제된 다음 날인 1월 13일 장경국이 서거했다.

1988년 1월 13일, 이 날은 나에게 아주 인상이 깊은 날이다. 그 날이 아버지의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TV앞에 앉아 중화TV에서 방송했던 경요(琼瑶) 소설을 개편한 드라마 <해구비처채운비(海鷗飛處彩雲飛)>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채널을 돌리는 바람에 타이완TV의 <환군명주(還君明珠)>를 보았다. 8시 반이 지나자 광고가 시작되었고 반 정도 방송되었을 쯤 갑자기 TV에서 장경국의 영정사진이 나왔다. 우리 가족은 정말 놀랐고 화면도 그 장면에 정지되어 시간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다.

한동안 그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국민당의 긴급 중앙회의에서(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당정이 나뉘져 있지 않은 시대였다) 리덩훙이 선서를 하며 취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아침부터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여느 때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조회때 국기는 중간으로 내려졌다.

이때 학교 교정에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매일 선생님은 우리들을 데리고 허리를 숙여 절을 하게 했고 선생님은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울면 여학생들도 따라서 울었고 나중엔 모두가 울기 시작했다.

“이게 다 민진당이 ”장총통“를 괴롭힌 탓이야, 흑흑흑.” 여학생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말했다.

“새로운 ‘장총통’은 왜 성이 장이 아닐까? 그럼 이제 무슨 ‘총통’이라고 불러야 하지?” 아이들은 “리‘장총통’ 이겠지?”라며 소곤거렸다.

2주 동안 TV는 흑백으로 방송되었고 내용도 추모영상이 방송되어 정말 무료했다. 그리고 모든 오락 활동을 금지해서 근처 비디오 대여점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 물론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한 것으로 먼저 셔터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문의 작은 구멍으로 단골 고객인 걸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줬다. 나중에 TV는 다시 칼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추모영상이 방송되었고 만화나 영화는 볼 수 없었다.

이 일에 관해 선생님들은 감동을 하시고는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을 진심으로

타이르셨다. 왜냐하면 쑹메이링(宋美齡) 여사가 대중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TV프로그램을 원상 복귀한 것이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제향군인병원에서 “총렬사”로 시신 옮기는 준비를 했는데 제향군인병원에서 우리 집 앞의 텐무시루(天母西路)를 거쳐 중산베이루(中山北路)를 돌아 스린(士林)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모두 노제 대열에 참가하였고 학교에서는 모두에게 마포를 주어 팔에 달게 하고 텐무시루 양 옆으로 줄을 맞춰 세웠다.

당시 이 길에 있던 우리 집 앞의 공터는 폐허로 잡초가 무성했고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했다. 하지만 장례 노선이 공포되자 이틀 만에 원예잔디로 가득 채워져 마치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세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노제 당일이 되자 모두들 검은색 포를 달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 학교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양 옆으로 줄을 서 있었고 장례 용품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선도차가 지나가자 길의 저쪽 끝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들렸고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커졌다. 알고보니 그건 울음소리였고 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멀리 차의 행렬을 따라 천천히 들려왔고 또 길의 반대쪽 끝에서 없어졌다. 차량의 행렬이 떠난 후 우리는 학교로 돌아갔다.

시신이 “총렬사”로 옮겨진 후 타이베이 여러 곳에 무료 참배 셔틀버스가 마련되어 사람들은 열심히 참배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장경국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갔고 물론 현장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TV프로그램은 다시 원상복구 되었고 오랫동안 방송이 정지되었던 터라 관중들이 드라마 내용을 잊었을까봐 각 방송국은 드라마의 “특집편”을 방송해 한 번에 몇 편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드라마의 특집편이라는 형식이 생기게 되었고 나는 이때부터 타이완TV의 <환군명주>를 시청하게 되었다.

장경국은 타이완에 온 이후 소련의 정치교육을 받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이데올로기 통계와 감독을 책임졌고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민중속으로 들어가 대중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여러 방면의 경험으로 그는 당, 정, 군의 경력이 완벽했고 국민당 내에서의 정치적 파워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 게다가 장개석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자연스럽게 후임자가 되었다.

장개석 시대에는 온 힘으로 “대륙수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완의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장경국은 권력을 장악한 이후 “대륙수복”이 이미 기약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타이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가 “행정원장”을 맡고 있을 때 국내외 정세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그가 지휘하던 기술 관료들은 대중을 의견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10대 건설을 완성시켜 타이완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켰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던 1980년대에 이르자 독재정부이긴 했지만 시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취할 수 있었고 타이완 민주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진실을 가리고 역사의 흑면지가 사라졌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몇 대가 지나고 나서야 공적과 과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하면 언제나 “장경국이 재임했을 때는 말이야.....”라며 그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듯이 말을 하곤 한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당시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함께 노력했던 충실감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모두가 부유해졌지만 공동의 목표가 없어져서 약간은 공허한 듯하다.

####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의 주제곡인 Hand in Hand(손에 손잡고)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는 올림픽의 첫 주제곡으로 당시 표준어와 광둥어 버전으로 번역되었고 청소시간에 동요만 틀어주던 학교에서조차 이 노래를 들었다. 가사가 확실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선창할 때에도 이 노래를 특히 즐겨 불렀다. 이 노래는 서울올림픽이 개막되기 1년 전에 이미 알려져 모두가 부를 수 있었다.

한국은 타이완과 가까웠기 때문인지 타이완에서는 많은 대표단을 보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남자 100m 육상 경기였다. 언론에서는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결승을 오랜 숙적의 최종 결전으로 묘사를 했다.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자 두 사람은 맹렬한 호랑이가 우리에서 뛰어나오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벤 존슨이 9초대로 세계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약물 사용이 검출되어 실격되고 말았다. 원래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 경기가 너무나도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약물사용에 대해 더욱 비난을 했다.

여자 육상경기에서는 “꽃나비” 조이너스가 3개의 금메달을 차지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선생님들은 그녀가 노력해 온 과정을 본보기로 삼기도 했다.

중국 대표팀은 탁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천징(陳靜)이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화제는 경기에 관련된 승부조작 소문이었다. 우승을 다투던 선수들은 모두 중국팀 선수들이었는데 당시 떠돌던 소문은 천징이 선배선수에게 쳐주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성이 강했던 천징은 그 지령을 무시하고 상대를 눌러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그때부터 국가대표 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그 경기는 너무 치열해서 둘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고 나는 탁구를 좋아하던 아빠를 따라 몇 번이나 그 경기를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봤던 탁구경기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시합이었다. 3년 후 천징은 타이완으로 와서 타이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 “5·20 사건”

중국 역사는 항상 “정부의 핍박과 농민의 대항”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농민 봉기는 바로 이 역사라는 드라마의 절정부분이었고 농민들의 이익과 통치자의 이익이 충돌되는 최종의 표현 형식이었다. 중국의 농민들은 사회의 최하위층에서 생

활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고난과 희생으로 묵묵히 견뎌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 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1988년 4월, 타이완과 미국은 미국 수입 농산품 문제에 대해 협상을 했는데 대규모의 곡물 수입도 언급되었다. 이는 타이완의 쌀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곡물 수익도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시대는 발전하고 글로벌화가 된 듯 했지만 농업은 또다시 대외무역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농민들의 이익도 희생되어야 했다.

5월 20일은 타이완정부 총통 취임식이 진행되는 날이다. 하지만 수입 농산품 문제로 인해 남부지역 농민들이 북쪽으로 올라와 항의했고 막 총통에 취임한 농업경제학박사 리덩휘에게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원래 단순했던 항의 사건이 큰 싸움으로 번져 타이완 역사상 최대의 경찰과 민중의 충돌사건이 되어버렸다.

막 계엄령이 해제된 타이완에서 이렇게 장렬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TV에서는 뻣뻣하게 모여든 항의자들과 더욱 많이 모여 있는 진압경찰과 헌병들을 볼 수 있었다. 당시 타이베이시의 철로는 지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 기차도 철로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TV뉴스나 지하 방송에서는 이 사건의 충돌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 첫 번째는 “입법원”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광경은 “대혼란”이라는 말로 밖에 형용이 되지 않는다. 그 장면은 마치 <삼국무쌍(三國無雙)>의 게임 장면과도 같았는데 한 무리의 농민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리의 야채를 진압경찰에게 던지자 거리에는 온 사방이 야채로 뒤덮였다. 이번 충돌에서 경찰은 크게 패하였고 시위자들은 “입법원”의 간판을 뜯어내었다.

두 번째는 깊은 밤 군중들과 진압부대들의 “도시유격전”이었다. 모든 충돌의 중심인 중화루(中華路) 부근의 거리는 마치 전쟁터처럼 곤봉과 돌맹이가 난무하고 양배추와 계란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고 항의자들과 진압 부대는 서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그날 저녁 TV에서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나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구경을 좋아하는 자들은 구름다리에 모여 구경했다. 그날 밤, 민주 소시지를 팔던 많은 장사꾼들도 자전거를 몰고 군중들과 함께 돌격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침에는 농민들의 단순했던 청원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밤이 되자 청원하던 농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뜨거운 피가 흘러넘치는 군중들로 변하여 깃발을 흔들며 외쳐대고 있었다. 타이완이 막 개방을 하던 시기로 모두가 뜨겁게 외쳐보고 싶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당시 헌병으로 군복무 중이었고 폭동 진압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길 처음에는 확실히 큰 사건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가 시위진압으로 휴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상태였고(타이완 의무병들에게 있어 휴가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었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감히 내 휴가를 망친거야!’하고 눈에 불을 밝히며 싸우게 된 것이라고 한다.

“5·20사건”은 당시 모든 언론에서 “폭도”와 “혼란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이들이 내가 알고 있던 성실하고 순박한 농민들이 맞나?, 왜 그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혹감이 생기게 되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타이완의 “부총통” 샤오완창(蕭萬長)은 모두가 그를 “미소 샤오”라고 불렀는데 바로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다. 당시 그는 “국제무역국장”을 맡아 미국과 수입농산품 문제 협상을 책임지고 있었다. 충돌이 발생하자 그는 직접 나서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계란 세례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도 미소를 짓고 있어서 그때부터 “미소 샤오”라고 불려 지게 되었다.